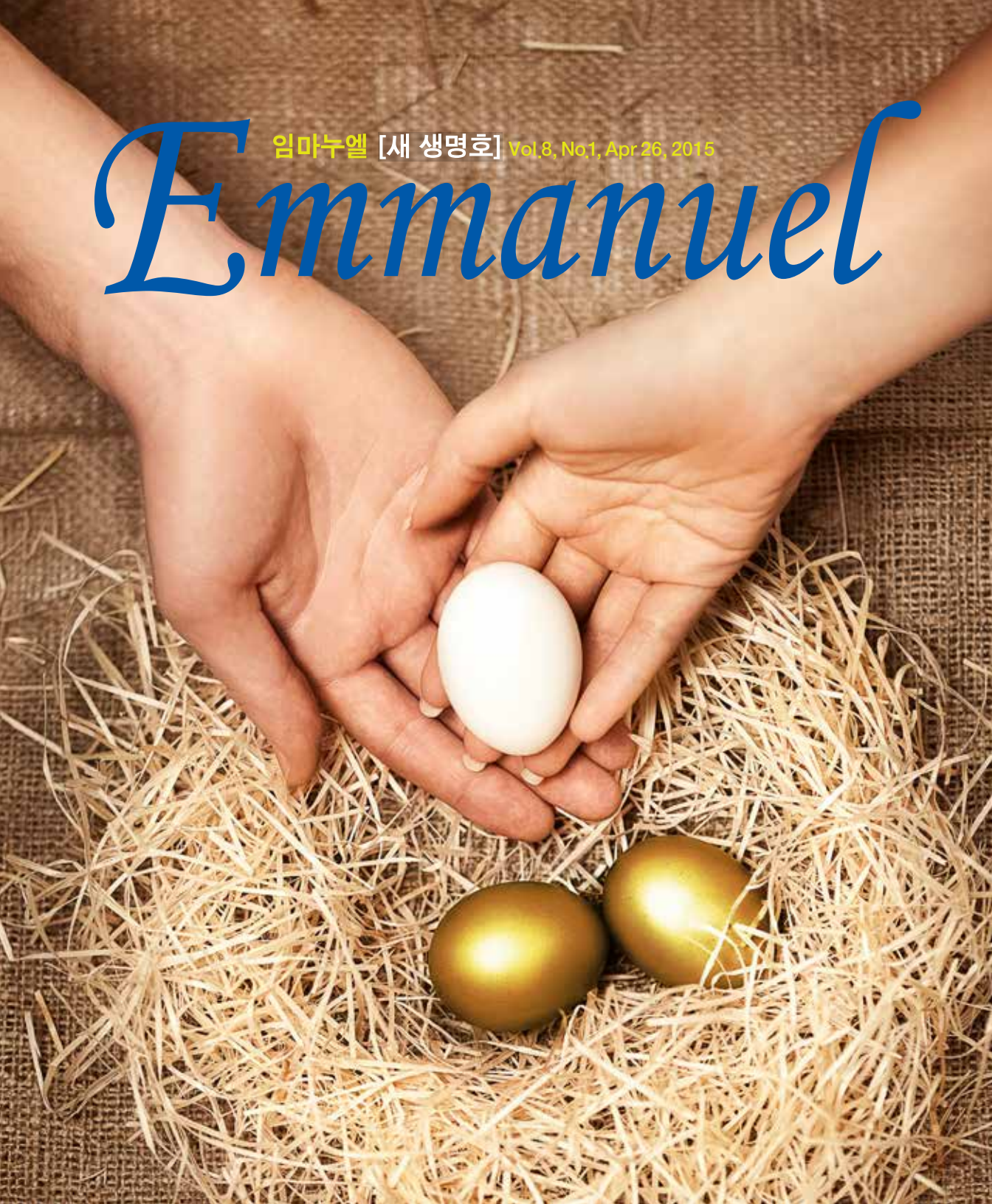


임마누엘 [새 생명호] Vol.8, No.1, Apr.26, 2015

Emmanuel



Contents

Vol.8, No.1, April 26, 2015

말씀의 창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4-15)

How, then, can they call on the one they have not believed in? And how can they believe in the one of whom they have not heard? And how can they hear without someone preaching to them? And how can anyone preach unless they are sent? As it is written: How beautiful are the feet of those who bring good news!

(Romans 10:14-15, NIV)



I. 행전시리즈 04

04	새 생명
	선교 기획 특집
06	Fresno Hmong 민족
10	몽족을 만나 보고서...
12	믿음의 선진들
14	청교도의 후예들
16	사도 바울
18	양화진 선교사 이야기

II. 실만한 물가 20

20	전도 팁
21	임마누엘 레시피
22	음식 상식
24	자녀를 위한 기도문
25	크리스천 명언
26	커피 스토리
28	물 댄 동산
30	성경속의 식물
32	시가 있는 풍경
33	성경속의 '서로'
34	함께 읽는 동화

III. 임마누엘 사람들

	천사도 흠모하겠네
36	부활의 증인 1
38	부활의 증인 2
40	부활의 증인 3
42	영혼 구원 간증
44	멘토와 멘티의 사랑
46	나의 노래
48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50	찬양 팁
52	건강칼럼
54	방 to 방 - 영아방 이야기
56	팀 소개
58	인터뷰

새 생명

지난 해 여름 미국 뉴스 전문채널 CNN은 ‘인류의 미래를 보려면 한국으로 가라’며,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10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크레딧 카드 사용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근로 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 그래서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6시간도 채 되지 않지만 스트레스를 ‘폭탄주’로 푸는 나라, 달팽이 점액이 담긴 내장을 넣어 만든 ‘달팽이 크림’이나 제주도 화산토를 사용해 만든 마스크 팩 등 예뻐지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는 나라, 세계 여자 골프선수 랭킹 100위 가운데 38명을 포진시킨 나라 등, 국토 면적으로는 109번째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이지만 세계적으로 뛰어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세계에서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신생아 출산율입니다. 한국의 여성 1인당 출산율이 2013년에 1.19명, 2014년에는 1.21명에 머물렀습니다. 일본보다도 낮고, 일가구 일자녀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보다도 낮습니다. 학생 수의 격감으로 놓여준 초등학교들의 62%가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은 국가 경쟁력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이고, 머지않아 국가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소멸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측도 있습니다. 6.25 사변 후 1955년 우리 나라 여성의 출산율은 6.33명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훨씬 더 풍요로워진 시대에, 못 낳는 것이 아니라 안 낳는 것이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새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가진 모든 동·식물들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고(창1:22), 그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창1:28). ‘새 생명’을 낳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필수 사항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창조의 질서는 올해도 어김이 없어서, 앞마당 작은 정원에 들뜬 산골짜기에 ‘새생명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은 흙을 헤치고 파릇파릇 새싹이 돋았습니다. 죽은 듯한 나무들에 물기가 오르고 눈부시도록 맑은 초록의 새 잎사귀들이 온갖 모습으로 산야를 덮었습니다. 새들은 저마다 짹 짹 입을 하며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여 가정마다 교회마다 목장마다 ‘새 생명’을 위해 기도하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이 넘쳐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 가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 가시던 예수님은 삭개오 곁을 그냥 지나가셔도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괜히 사람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외면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삭개오 같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눅19:10)”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만난다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로마 제국에 기대어 백성을 착취하는 세리, 상대하지 못할 죄인으로 취급하였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사랑하고 구원해야 할 소중한 영혼으로

보셨습니다. 죄로 얼룩진 죽음의 땅에서 그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는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지나왔습니다.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삭개오 같이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 죄인들을 찾아 오셨습니다. 죄에서, 고통과 고독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 삼일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시대의 삭개오들, 지위 뒤에 숨겨진 지치고 외로운 모습들을 봅시다. 화사한 웃, 화장한 얼굴, 꾸민 웃음 뒤에 공허한 마음을 감추고 힘겹게 살아 가는 사람들을 봅시다.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초청하여 예수님께 인도합시다. 예수님은 그들의 공허하고 목마른 마음에 소망과 기쁨,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주기를 원하십니다.

겨울이 지나고 어느 덧 봄이 왔습니다. 자연의 세계에는 나뭇잎마다 풀마다 새 생명이 싹이 트고 힘차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 가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죄와 죽음의 병을 앓고 있는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살리실 것 입니다(요11장). 영원히 시들지 않고 죽지 않는 ‘새 생명’을 얻게 하십시오.

글 손원배 목사

Fresno Hmong 민족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는 수 많은 종족이 함께 살고 있다. 미국은 이민의 역사와 함께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가고 있다. 오늘은 특별히 CALIFORNIA, FRESNO, 몽 (HMONG) 민족에 대해 나누려고 한다. 많은 우리 한인교회들이 단기 선교의 불을 일으키며 여름이면 여러 나라로 나가고 있다. 그중에는 인디언들을 위해 단기선교를 떠나는 사람들과 교회들도 많다. 그런데 가장 가깝고 가장 복음화가 안된 한 민족이 있다. 그들이 바로 Hmong 사람들이며 같은 시기에 난민으로 이곳에 온 소수 다른 민족들이다. 현재 미국에 약 237,000명이 살고 있으며 그 가운데 CALIFORNIA (91,224), MINNESOTA (66,181), WISCONSIN (49,240), NORTH CAROLINA (10,864), MICHIGAN (5,924), COLORADO (3,859), GEORGIA (3,623), ALASKA (3,534), OKLAHOMA (3,360), AND OREGON (2,920) 정도가 살고 있다.

몽족은 FRESNO에 약 6만여명이 살고 있고 나라가 없는 이들에게는 후레스노가 고향과 같은 곳이기도 하다. 난민들 전체 인구는 약 9만여명이 후레스노 살고 있다 (몽, 카몽, 라오스, 캄보디아 등). 이곳에는 이민1세들의 무덤도 있고 처음 정착되었기에 타주에 살아도 일년에 한두번씩은 꼭 방문을 한다. 이렇게 많은 소수민족이 미국내에서 살고 있지만 한가지 특징은 한 도시에 대부분이 모여 살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집단적으로 그렇게 많은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곳은 후레스노뿐 일 것이다. 많은 다양한 민족들이 이민을 와 있지만 사실은 저들은 자기의 고향과 국가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몽 민족들은 부족으로 떠돌다가 난민으로 왔기에 국가라는 개념이 없다. 그래서 저들이 처음 미국땅에 발을 딛고 삶을 시작했던 후레스노는 저들의 고향이요 또한 국가와 같은 존재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다.

해마다 12월26일부터 1월1일까지 후레스노 대운동장에서 몽 민족축제가 열린다. 약 10만명 정도가 운집하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다. 이 축제 기간에 흠여졌던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고 나라없는 설움을 달래며 서로를 위로하고 안부도 물으며 미국에서의 삶과 애로를 나눈다. 이 몽 부족을 선교하는데 무관심해서 지금까지 어떤 한인 단체나 교회들도 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하지 않았다. 사실 몽 민족은 우리 한민족과 같은 부류의 종족이다. 인디언들은 미국정부로부터 많은 보조와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서 돕고 복음을 전하지만 이 몽 민족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재작년 7월 말, 처음으로 L.A에서 세 개척교회가 연합하여 몽 민족을 위해 V.B.S를 준비하고 약 30명의 학생들과 어른들이 와서 섬기고 돌아갔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무엇보다 각 가정을 돌며 전도할 때면 많은 몽족들이 우리 한인 그룹을 너무나 반겨 주었다. 그리고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고 적극적으로 호응해주며 참여하였다. 단 한 번 전도에 50여 명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역사를 보았다. 4월 동안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보여 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며 가지고온 선물을 나누며 정말 한 가족처럼 지냈으며 주님의 자녀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저들이 얼마나 복음에 목말라 했었나를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면 소수이지만 복음에 목말라하는 성도님들과 학생들이 와서 몽 사람들을 위하여 일일 초청잔치를 하고 있다. 누군가 해야할 일을 그동안 미루고 있다가 한인교회들을 통하여 몽 민족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이제 이들을 위하여 가르치는 교사들과 데려올 15인승 밴들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 일을 위해서 누군가 헌신자가 나올 것



으로 믿는다. 어느 특정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모든 한인교회들이 협력하였으면 한다. 기도와 물질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 한민족과 동질의식을 갖고 있는 몽민족을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OUT-REACH를 오고 또 신앙으로 잘 교육하여 미래의 선교사로 키우는 사역이 필요하다.

올해는 청년 한 사람을 신학교에 보내고 불학기에 공부를 시작한다. 우리 하모니교회에는 현재 토요일 출석이 약 300명 정도이며 주일에는 차량 부족으로 인하여 약 70여 명의 아이들과 청년들 그리고 어른들이 출석하고 있다. 교회는 그들을 반드시 픽업해야 하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들에게는 각자 타고 다닐 수가 있는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가 픽업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실정이다. 사역적인 부분에서 어떤 외부의 도움없이 지금까지 자비량으로 해보려고 몸부림쳤지만 역시 사역에 한계를 느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협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뜻을 함께하는 교회들을 찾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함께 사역을 할 현지인들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후원하는 교회없이 진행되다 보니 여러가지 경제적 어려움과 난관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여전히 현지인 부교역자들을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얼마라도 페이를 해주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다. 목회자인 제 자신 역시 자비량으로 봉사하기에 앞으로 이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있다. 개인적인 기도제목 가운데 하나는 제 자신과 가정이 경제적인 부담없이 마음껏 사역에만 전념하는 것이다. 몽족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변하여 또 다시 그 민족을 깨우게 하는 사역이야말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믿는다.

몽 아시안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선 주님의 대위임 명령이며 한국인들은 아시안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먼저된 자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국사람들에게 너무나 친절한 민족인데다 한국을 가보고 싶은 1순위 나라로 생각하고 있고 한국 사람과 뿌리가 같다는 인류학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몽골 반점). 또한 복음을 듣지 못한 몽 아시안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어떤 선교지보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영어와 사랑으로 얼마든지 전할 수 있고 (영어를 조금만 해도 마음으로 서로 통함) 여러 교회와 협력하여 빠른 시일내에 몽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이제 막 시작한 몽선교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선교의 흐름을 이끄는 나팔수 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몽 아시안 선교를 후레스노에서 왜 해야만 하는가?

후레스노는 산호세 지역과 LA 지역에서 가까운 거리 (약 2-3:30분 거리)인데다 비자나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동참할 수 있고 비용에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며 거리가 가까움으로 예산이 절약되고 8시간이면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다. (오고 가는 시간과 사역시간 합해도 8시간이 안됨) 또한 온 가족이 함께 선교에 동참할 수 있어 어른, 어린이 모두 와서 함께 사역할 수 있으며 토요일 하루만 하기에 시간적으로 헌신할 수 있고 무엇보다 전도하면 몽족들이 우리를 너무나 환영하며 집 문을 두드리면 열어 주고 마음도 함께 열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인다. 뿌린만큼 다른 지역보다 쉽게 열매를 거둘 수

있고 온 가족이 주말소풍 겸 선교를 할 수 있어(오세미티국립공원, 킹스캐년, 세코야 국립공원이 약 1시간 거리) 해외 단기선교에 동참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최적의 장소이기도 하다. 복음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하며 직,간접적으로 도울 수도 있으며 영적인 양자,양녀를 삼아 초대하기도 쉽고 서로 오고가며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 게다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제자로 키울 수도 있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내려갈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하여 금방 친근해질 수 있으며 자녀들과는 친구가 되고 몽족 아이들에게는 비전이 될 수 있다.

현재 기도제목

1. 매주 토요일에 선교할 수 있는 팀들이 생겨 나도록
2. 몽 아시안 사역에 필요한 15인승 밴구입을 위해서 (중고번 약 \$12,000 정도)
3. 매주 선교 사역비 보조와 채워짐을 위해서
4. 중고 컴퓨터 20대 확보를 위해서 (온라인 과외와 소통)
5. 주일에 픽업할 수 있는 봉사자들을 위해서
6.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동안 청소년들 VISION TRIP을 위해서
7. 정기적으로 협력 가능한 교회와 개인 후원자 모집을 위해서
8. 한인 한 가정이 몽족 청소년 한 명 영적 입양하기 운동을 위해서 (제자 만들기)
9. 자유롭게 예배 드릴 공간을 허락해 달라고
10. 황인주목사 가정 재정 자립을 위해서

글 황인주 선교사 (FRESNO, 하모니교회)





‘몽(Hmong)족’에 대해서 들어 보셨나요?



몽족을 만나 보고서...

베이지역에 사는 한인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점이겠지만, 한 집 건너 이웃 또는 몇 블록 떨어진 동네만 가도 피부 색깔도 다르고 생활양식과 문화가 다른 다양한 민족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곳이 바로 이 캘리포니아 지역이 아닌가 싶다. 그만큼 마음만 먹으면 쉽게 타민족에게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의 장소이다.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집사님의 소개로 매달 한 번 토요일에 참여하는 몽족 사역을 접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160여 마일 152번 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달리다 보면 닿게되는 도시 프레сно(FRESNO). 도시 주변이 농장과 과수원으로 둘러싸여 있는, 넓게 확트인 평원을 바라보면 마음이 시원하게 뚫린 듯 마냥 즐겁기만 하다.

실제로 몽족은 여호수아 프로젝트 웹사이트1 (www. JOSHUAPROJECT.NET)을 방문해서 찾아보면, 태국, 라오스, 중국, 베트남 국경 등지 산악지역에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중국 묘족계통의 소수민족이다. 특히, 라오스 지역 묘족은2 자신들의 독립을 위해 1973년 베트남 전쟁에서 용병으로서 미국을 비밀리 도왔으나 전쟁후 공산화된 라오스정부의 탄압으로 태국이나 라오스 밀림으로 숨어 들어 갔으며, 일부는 미국이나 캐나다 등으로 망명하였다고 한다.

이곳에서 한인 목회자로서 몽족에 대한 열정과 소원하는 마



음으로 10년을 넘게 몽족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 오시고 이를 위해 현재 사역하고 계시는 황인주 목사님을 만날 수 있다 (THE HARMONY KOREAN CHURCH). 황 목사님 말씀으로는 프레сно 몽족에는 이민 1세들의 교육수준이 낮은데다가 언어소통의 문제로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다고 한다. 게다가 한 집에 10명 가량의 자녀가 함께 사는 가정이 많고 형제끼리도 다른 아버지를 두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만큼 아이들에게는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어린 나이에 이성과 마약에 눈을 뜨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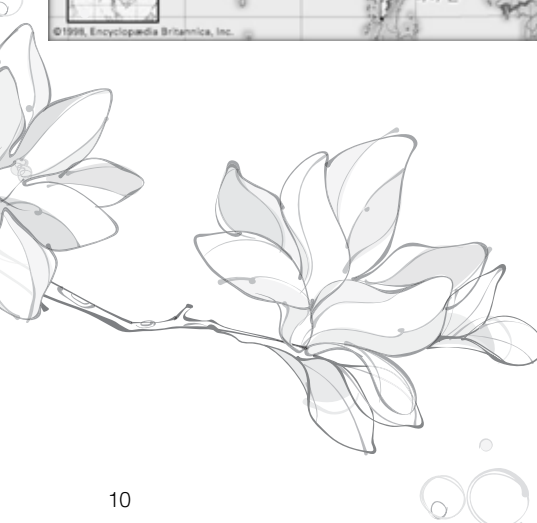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과 주님의 사랑을 심어줄 길잡이가 필요하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토요일성경학교는 LA와 베이지역 교회들이 매월 한 번 토요일 돌아가면서 맡아 진행하고 있다. 큰 교회 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가 연합하여 교회별로 같은 지역의 아이들을 매달 한 번 꾸준히 만나서, 찬양하고, 게임을 하고, 말씀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풍성한 토요일 하루를 보내게 된다.

선교의 해로 정해진 2015년, 새롭게 몽족이 단기선교 종족으로 선정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차로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이기에 이번 7월의 단기 선교이후에도 관심있는 성도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선교의 현장으로 기대된다. 우리교회 목장들 중심으로 MISSIONARY FORCE TEAM 이 구성되고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일일 성경학교라든지, 어린이 말씀잔치등이 열리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몽족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는데 우리 각자가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방문할 때마다 자원 봉사자들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고 반기는 모습, 줄망줄망 모여 찬양과 율동을 열심히 따라하는 모습, 초롱초롱한 눈동자를 크게 뜨고 진행자의 전하는 복음을 주의깊게 듣는 몽족 아이들의 모습에서 복음으로 새로워질 몽족을 소망해 본다.

글 조상전

출처 1. www. Joshuaproject.net

2. https://warmmywarmmy.wordpress.com/whats-hmong/korea/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 길선주 목사



앞줄 가운데 분이 길선주 목사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전후하여 그 중심에 길선주 목사가 서 있다. 그는 이 운동에서 참회의 경험을 다시 하게 되었고, 또한 이 운동을 이끌고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어떻게 참회의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 길선주 목사의 간추린 생애

‘조선 기독교의 아버지’인 길선주는 1869년 평안북도 안주에서 태어났다. 그는 7세부터 16세까지는 한학을 배웠고, 17세부터 20세까지는 관성교에 심취하였다. 그러나 관성교에서는 어떤 영적 만족을 얻을 수 없었으므로 그것을 포기하고 21세부터는 선도(仙道) 수련에 몰두하기도 하였다. 길선주의 종교 편력은 다양했지만, 아무것도 그의 영적 만족을 주지 못 했을 뿐만 아니라 갈증만 점증시켰다. 그러던 중 1893년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 마포삼열(Samuel A. Moffett)이 평양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였다. 처음에 길선주는 서양 종교에 관심이 없었으므로 그것을 무관하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서양 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 온 것에 대해 적개심까지 갖게 되었다. 그의 친구인 김중섭이 마포삼열과 교분을 가지면서 길선주에게도 기독교 신앙에 대해 탐구 해 보라고 여러 가지 기독교 교리서를 주자, 학문적 탐구심이 강한 길선주는 그 책들을 탐독하면서 차차 기독교 진리에 대해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를 기독교로 이끈 결정적 책자는 번연의 <천로역정>이었고, 길선주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것은 김중섭의 권유에 의해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에서였다.

<http://cafe.naver.com/bssmch/77486>

길선주는 19세에 관성교에 입문하여 29세까지 선도에 몰입하였다가, 결국 기독교에서 그의 영적 만족을 얻게 된 것이다. 길선주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바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1897년 7월 12일 삼십세 되던 해 이길함(Graham Lee)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개심하던 해에 영수직을 받았고, 33세에 장대현교회 장로에 선출되었다. 그는 1903년에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 입학하여 1907년 제1회로 졸업하여 그해에 설립된 독노회에서 안수받고, 장대현교회에서 시무를 시작하여 20년 동안 목회하다가 교회의 분규로 이항리교회를 창립하여 목회하면서 전국 교회의 부흥 사경회를 인도하였다.

-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과 길선주의 회개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 새벽 예불을 드리는 것에 익숙해 있던 길선주는 1906년부터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규칙적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하였고, 그가 새벽에 기도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교인들 중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약 300-500명이 매일 모이는 집회로 변했다. 시무 장로였던 길선주는 교회 당회의 허락을 얻어 정식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였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새벽기도회가 비롯된 시점이다.

1907년 정월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평안남도 남포도 사경회가 개최되었다. 이 사경회는 매년 열리는 연례행사로 이 부흥운동은 일찍이 1903년 원산 지방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들이 한주간 동안 성경공부를 겸한 기도회를 가질 때 이 지방에서 선교하고 있던 남감리회 소속 하디(R. A. Hardie) 선교사가 선교 사역의 결과가 없는 것을 통탄이 여기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한데서 발단되어 한국 교회가 새로 태어나는 결정적 전기가 되었다. 1907년 대부흥운동은

많은 사람을 참회케 하였다. 길선주도 이 때 다시 한번 참회를 하였다 한다. 부흥운동 마지막 날인 15일 밤 길선주가 회개하는 모습을 그의 아들 길진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우리와 몇몇 선교사들은 길씨와 주씨 두 사람을 위해서 특별 기도를했다... 그런데 갑자기 길씨가 일어나 자신은 형제들을 질시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방위랑(W. N. Blair) 선교사를 극도로 미워했음을 회개한다고 하며 보기에도 비참할 정도로 땅바닥에 굴렀다...’ (길진경, 靈溪吉善宙, 192.) 그는 당시 평양 장대현교회 시무 장로였고, 또 장로회 신학교 졸업반으로 6개월 후면 졸업을 하게 되고 그해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 한국인 최초의 7인 목사 중 1인이 되는 분이다. 그런데 그가 한 회개가, 다름이 아니라 ‘형제들을 질시했고, 방위랑 선교사를 극도로 미워했다’는 것이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바늘 끝같은 작은 죄라도 참회의 대상이 되었다. 그가 지도자로서 강단에서서 교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위치에 선 사람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지나가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다.

기독교는 죄를 고발한다. 그리고 그 죄를 참회하라고 엄명한다. 죄의 해결없이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 참회는 기독교인이 되는 선결 과제이며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핵심은 회개 운동이었다. 한국교회가 진정한 참회의 과정을 관통하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것이다.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철저한 참회운동이 요청된다. 길선주의 참회는 이방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받아 드릴 때, 그 때까지 지은 크고 작은 죄에 대한 철저한 참회 고백과 목사가 되기 직전의 일상적인 사소한 죄악에 대한 통절한 참회가 오늘 한국 교회의 초석을 놓은 대부흥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한가지 중요한 이 역사적 교훈을 바르게 배우고 실천할 때 우리 교회의 내일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정리 홍정희

출처: 교회와 신앙/ 김인수, 장신대 역사신학 교수

찰스 해돈 스펀전



<http://americanvision.org/6532/charles-spurgeon-on-elections-and-voting/>

Charles Haddon Spurgeon, 1834-1892

찰스 해돈 스펀전은 영국 에섹스 켈비던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평온하고 독실한 목회자 가정에서 신앙 생활을 하던 스펀전은 사춘기를 구원을 향한 회의의 시기로 보내게 되었다. 그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배어 온 일상이었으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삶은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날 설교를 하기로 되어 있던 목사님이 눈보라 때문에 나타나지 않아서 회중에 있던 한 성도가 설교를 하게 되었다. 그 성도의 설교는 간단했다. 구원을 위해서는 다만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것이었다. 그는 죄의식으로 지치고 낙담한 스펀전을 가리키며 “단지 주만 바라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했다. 그 순간 스펀전은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됐다. 구원이 오로지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때부터 스펀전의 삶은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의 삶이었다. 1851년 그는 17세의 나이로 정식 목사 직분을 얻었다. 그후 일생동안 그가 설교하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몰려 들었다. 그의 힘차고, 신학적이며, 감미로운 설교는 그로 하여금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게 만들었다. 1861년 3월 31일 스펀전의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에서 최초의 주일 예배가 드려졌다. 스펀전의 설교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지어진 이 교회 건물은 6천석을 가지고 있었지만 몰려 오는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없었다. 그의 설교는 매번 서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까지 1만명을 넘었다. 그러고도 수백명의 사람들이 항상 되돌아 가야만 했다.

그는 매 번의 설교를 위해 수 시간을 기도했다. 그는 결코 제목 설교를 한 적이 없었으며 항상 성경 본문으로 강해 설교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용이 다른 설교 3,500여 편을 중복해서 설교한 적이 없었다.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은 그가 그토록 많은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개인 전도하는데 보낸 것을 보고 알 수가 있다. 그는 바쁜 일정 중에도 매주 화요일은 구원의 확신을 위한 개별적인 면담을 위해, 토요일은 복음을 위한 개별 방문을 정기적으로 행하기 위해 남겨 두었다. 그는 “내가 소유한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자기가 꼭 명심하도록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이런 겸손은 처음에는 비우호적이었던 사람들까지도 “그의 고조되어 가는 명성에 따라 저만심이 커져 가기는 커녕 그가 우리의 눈을 깜짝 놀라게 했던 처음보다도 오히려 더욱 겸손하고 더욱 자기를 부정하게 된 것 같다.” 고 말하게 만들었다. 1891년 1월 그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그는 불타는 진실성과 굽힐 줄 모르는 신학적 신념과 열정을 가진 ‘복음의 전파자’였다.

출처: Lloyd Jones' homepage

사도 바울 이야기 2편

해외 선교의 시초 -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서쪽 지방으로 나아간 첫 해외 선교사였다 (행13:2-3). 그 때 이들의 일은 곧 이 위대한 선교운동의 시초였으며 이것은 한 기도회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방인이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이 되어 그들의 율법과 의식을 받아 들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다. (행15:1) 바울과 바나바는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를 외쳤을 뿐이었다. 왜냐하면 율법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이 작은 선교 팀에 누가(Luke)도 가

입하였는데 (행16:10) 이 선교사들의 전도에 의해 유럽 지역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기독교인이 된 첫 선자는 유명한 학자도 아니요 권세있는 정치가도 아니요, 자주 장사인 루디아라는 경건한 여자였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되었던 빌립보에서의 두 번째 회심자는 첫 번째의 회심자와는 전혀 달랐다. 루디아는 기도회에서 회심하고 기독교인이 되었으나, 두 번째 사람인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무서운 지진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 이때 물었던 간수의 질문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의 하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행16:30)

큰 도시들을 순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바울의 경험은 우리에게 관심있게 다가온다. 그는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웠으며 (행17:4) 당시 가장 유명했던 아덴의 아레오바고에서 불멸의 설교를 하였다. 장엄한 역사의 순간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는 그의 설교는 당시 청중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까? (행17:32) 바울은 그날의 설교를 아덴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가까이 계신다고 바울은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다를 수 없을 만큼 멀리 떠나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기도의 가장 작은 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자.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도착하였다. 그의 마음이 매우 낙심한 가운데에서도 그는 아덴에서 교회를 시작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당시 세상에서 가장 죄악이 범람했던 고린도에 교회를 설립하고 그곳 신도들의 신앙을 굳건히 하기 위하여 18개월 간 그곳에

서 머물렀다 (행18:8). 그곳에서 바울은 충실한 친구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었고, 후에 에베소를 경유하여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 성령께서 유럽에서 역사하셨던 선교사역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바울은 3년 동안 그 당시 세상에서 로마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 중의 하나였던 에베소에서 보냈다. 사치와 방탕으로 가득찬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에 대한 우상숭배로 유명한 도시였는데,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한 에베소 사람들은, 그들이 쓰던 마술책이나 은으로 만든 우상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워 버렸다. 그들의 옛 생활을 불에 태워 버리는 상징이기도 했던 그 때의 사건을 생각하며, 과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불태워 버려야 할 것이 없는지 돌아보며, 바울의 말씀과 같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우상을 헐어 버리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마음의 보좌를 차지하실 분이라고 다시 다짐해 본다.

바울의 고별 인사 - 바울의 마지막 전도여행은 그에게 있어 아주 마음 아픈 경험이었다. 그것이 마지막 작별임을 바울은 알았다. 행20:37-38을 찬찬히 읽어보자. 그들은 모두 바울의 목을 안고 크게 울며 그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는 생각에서 슬퍼하였다. 아마 다윗을 제외하고서는 어떤 사람도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사랑을 불러 넣었던 이가 없었을 것이다. 에베소 항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바울은 친구들에게 마지막 작별인사를 보냈다. 그 때로부터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한 바울의 뜨겁고 열정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 바울은 그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에서 자신을 크게 반대하는 폭동을 겪게 되었는데, 그들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버리라고 한다 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 때 추측하건데 바울은 26년 전 자기 자신의 모습, 즉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것이다. 바울이 로마시민임을 알게 된 천부장은 그에게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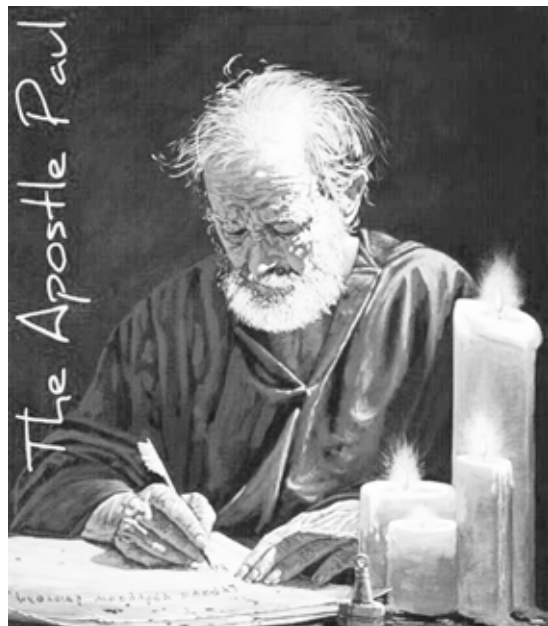
정한 재판을 약속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로마 총독 벨렉스 앞에 나아가 자신을 위한 변명을 하였고, 또 두 번째로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다음에는 아그립바 왕 앞에서 재판을 받았다. (행21:27-26:32)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던 중에 바울은 그가 탄 배가 심한 풍랑을 만나 밀려 다니다 멜리데 해안에서 파선하는 큰 고생을 겪은 후에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바울은 그의 셋집에 2년 동안 죄수로 감금되어 있었다. 이러한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위대한 선교사이며 전도자인 바울은 네로 황제 궁에서 일하는 종들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감당하였다.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가장 어두운 시기도 빛나게 할 수 있으며, 우리가 남의 짐을 가볍게 덜어 주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짐 또한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행 27:1-28:24) 그의 감금 기간 중 바울은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등 여러 개의 서신을 썼다. 또한 디모데 후서는 그가 로마 옥중에서 언제 죽음을 당할 지도 모르는 그러한 시기에 기록한 책이다. 결국 충성된 주님의 복음 전도자 바울은 전승에 의하면 그릇된 판결을 받고 손도끼로 목이 잘려지는 참수형에 처해졌다. 바울의 생전의 노력으로 유대 민족에 제한되어 있던 기독교는 전 세계적인 종교로 바뀌어졌으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장벽을 무너 뜨리고 종의 멍에를 벗겨 자유케 하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사도행전은 성경에서 유일한 미완성의 책이다. 부활하여 승천하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주님은 살아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도 계속 전진하고 있고, 우리는 옥중의 사도 바울처럼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며 쉬지 않고 움직일 것이다.

글 유소진 목사

옥중의 사도 바울

<http://truth-saves.com/jesus-christ>



헐버트 (Homer B. Hulbert)

1863 - 1949,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외국인"



<http://blog.naver.com/ljh8336910/10187784031>

헐버트는 한국의 은인,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외국인으로 칭송받는 인물이다. 1863년 1월 26일 미국, Vermont에서 목사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헐버트는 1884년 Dartmouth 대학을 졸업하고, 유니온 신학교 재학 중이던 23세 때 육영공원(育英公院) 영어교사로 1886년 7월 4일 내한하였다. 1886년 9월 23일 개원한 육영공원의 운영과 교육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육영공원 설학절목’〈育英公院 設學節目〉을 제정한 헐버트는, 학생들이 세계 지리에 관심을 보이자 1889년에는 ‘사민필지’〈土民必知〉를 한글판으로 발행했는데 이 책은 많은 학교에서 필수 교재로 사용되기도 했다. 5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한 후 학교가 문을 닫자 귀국했던 헐버트는 1893년 9월 감리교 선교사로 다시 한국에 오게 된다.

다시 방한한 그는 배재학당 안의 삼문출판사를 중심으로 주로 문서선교에 관여하며 다양한 주제로 한국에 관한 글들을 발표하는 한편, 1903년에 창설된 한국 YMCA의 초대 회장을 맡기도 하였다. 일본이 을사늑약(편집자 주:늑약(勒約):억지로 맺은 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과 재정권을 강제로 빼앗기 바로 전, 고종은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에게 외교적인 도움을 호소하기 위해서 헐버트를 밀사로 파견하였다. 이때 미국과 일본은 이른바 ‘가츠라태프트밀약’을 맺고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이권 보장과 한국에 대한 일본의 야망을 서로 묵인한 상태였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있던 고종은 1882년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 제1조, 즉 쌍방 중 어느 한 나라가 제3국에 의해서 침략을 당할 경우 다른 한 나라는 이에 간섭해서 우호적으로 사태를 해결해 줘야 한다는 거중조정 내용을 문구 그대로 믿고 밀사를 파견했던 것이다. 결국 헐버트는 친일 인사들로 구성된 미국 정부에 고종의 밀서를 접수시키지도 못하였고, 한국과

의 신의를 저버린 자신의 조국을 원망하면서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헐버트는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을 한국정부에 알리고 그것을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알리는 외교적인 통로로 활용하기를 권고하였다. 이에 고종은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이준 등 세 사람의 밀사를 파견하였다. 헐버트 자신도 헤이그로 가서 유럽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호소하였지만 일본의 압력으로 이 일도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1909년 8월에 헐버트는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다. 강제로 퇴위된 고종으로부터 상하이 독일계 은행에 예치해 둔 25만 달러 상당의 비자금을 찾아 안전한 은행으로 옮겨 달라는 밀명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해외 독립운동을 돕기 위해서 비밀리에 마련해 둔 이 자금도 일본 통감부의 간계로 결국 다 빼앗기고 말았다. 미국으로 돌아간 헐버트는 순회 강연과 신문 기고 등을 통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고 루즈벨트의 대한정책을 비판하며 한국을 잊지 않고 돕는 일을 했다. 광복 후 이승만 대통령의 초청으로 86세의 노구를 이끌고 내한하였지만 노쇠한 육신으로 오랜 여독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1949년 8월 5일 세상을 떠났다. “웨스터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는 헐버트의 유언에 따라, 그의 유해는 한 살 때 죽은 그의 아들(Sheldon Hulbert)이 묻혀 있는 양화진에 안장되었다.

편집부 제공 출처: www.yanghwajin.net

최상의 기쁨

복음을 경험하면 기쁨이 충만해 집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런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잃은 것을 찾을 때 즐거워합니다. 삭개오도 즐거워하고 예수님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또 찾은 족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눅15:5-7)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설 때 삭개오같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말은 하지 않지만 구도자들도 많고 그 내면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혼돈과 방황 속에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뽕나무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뽕나무가 필요하며 우리가 바로 그 뽕나무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복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모두 선교지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선교지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선교지로 파송받고 있는 것이며 예배는 우리 모두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예배입니다.

편집부 정리

-복음 받은 사람의 행복(강준민 저) 중에서-



감자칩 치킨너겟



몇년 전 미국에 와서 처음 초대받은 집에서 먹어 본 치킨 너겟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처음 맛 본 치킨 너겟이 너무 맛있어서 레시피를 물어보게 되었고, 그 후로부터 가끔씩 맛도 좋고 만들기도 간편한 치킨 너겟을 각종 모임이나 저희 세 식구 간식으로 만들어 두었다가 맛있게 먹게 되었습니다.

감자칩을 이용해서 만든 치킨 너겟...

목장 모임이나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의 영양 간식으로도 좋고 도시락으로 만들어 두었다 먹어도 인기 만점인 감자칩 치킨 너겟을 이제부터 소개할게요~!

재료: 닭가슴살 1팩, 우유, 소금1~2t, 후춧가루 약간,
다진 마늘 또는 파우더 마늘 1~2t, 달걀, 튀김가루,
Lays (cheddar & sour cream 맛) 감자칩



1. 닭가슴살 한팩을 우유에 30분~1시간 이상 담궈 닭의 비린 냄새를 제거한다.
2. 우유에 재워둔 닭가슴살을 물에 한번 씻어서 한입 크기로 저며 낸다.
3. 손질이 다 된 닭가슴살에 소금(1~2t), 후추, 마늘 가루(2t)를 뿌려서 골고루 묻혀 둔다.
4. Lays감자칩을 짬뽕에 넣고 방망이로 잘게 부순다.
(저는 cheddar& sour cream맛 감자칩을 주로 이용하는데 기호에 따라 다양한 맛의 포테이토칩이나 빵가루를 이용해서도 아주 좋아요)
5. 밀간이 된 닭가슴살을 튀김가루-> 달걀-> 잘게 부서진 감자칩 순으로 옷을 골고루 묻혀 주세요.
6. 오븐 팬에 호일을 깔고 오일을 바른 후 감자칩 옷이 잘 입혀진 치킨 너겟을 적당한 간격으로 올린 후 350도에서 20분 가량 바삭하게 구워 주세요(구울 때 약 10분 후 뒤집어 가면서 구워 주시면 더 좋습니다).

글 박정은

춘곤증에 좋은 음식 베스트 10

겨울 동안 움츠렸던 몸을 따사로운 봄볕에 녹일 수 있는 계절이 되면 온몸이 나른해지고 이유없이 졸음이 쏟아진다. 봄은 '춘곤증'의 계절이다. 춘곤증은 4월에서 5월에 많이 나타나며 일종의 생리적인 피로감이다. 잠이 쏟아지는 것 뿐 아니라 춘곤증의 증상은 다양하다. 생활에 의욕과 집중력을 잃고 쉽게 짜증이 나기도 한다. 식욕부진, 소화불량, 현기증 등의 증상도 나타난다. 춘곤증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영양 섭취로 우리 몸을 깨우는 것이다. 졸음도 물리치고 면역력도 키우는 봄나물을 모아 보았다.



1. 쑥

쑥은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며 배가 아프거나 신경통에 좋아 오래전부터 민간요법으로 많이 사용하였다. 씹싸름한 맛이 입맛을 돋우는데 도움을 준다.

2. 특소는 알싸함, 달래

마늘과 비슷한 달래는 단백질, 지방, 칼슘, 인, 비타민 A, B, C가 들어 있으며, 특히나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어, 빈혈이나 동맥경화, 노화방지, 각종 성인병에 도움이 된다.

3. 봄향기 가득, 냉이

냉이는 춘곤증으로 피로를 느낄 때 위장과 간을 튼튼하게 하고 식욕을 돋우며 소화를 촉진한다. 간의 해독작용을 돕고, 숙취해소에 도움을 준다. 겨우내 얼었던 땅속에서 겨울을 지내고 이른 봄에 나오는 냉이는 각종 비타민과 칼슘, 철분 등 무기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겨울을 지내고 막 나온 냉이에 영양분이 제일 좋다.



4. 칼슘의 보고, 돌나물

돌나물은 식욕을 돋워주고 피를 맑게 하며 혈액을 좋게 한다. 간과 신장에 좋고 체내독소를 제거하는 성분이 있으며 각종 균을 제거하는데 효과가 있다. 지방에 따라 곳나물, 돈나물이라도 부르기도 하며 돌나물은 생명력이 강하여 화분에 심어 놓아도 씨죽이 잘 자란다. 돌나물의 영양소 중에 특히 비타민 C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입맛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

5. 입 맛 찾아주는 씹싸름, 참나물

산에 가면 많이 보이는 흔한 나물이지만, 요즘은 나물로 먹기 위해서 재배를 하여 사계절 먹을 수 있다. 참나물은 씹싸름한 맛과 은은한 향이 나며, 고혈압, 지혈, 신경통 등의 증상을 완화하는 등 각종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다.

6. 알싸한 향이 별미, 취나물

취나물은 나물이나 쌈을 싸먹으면 나물의 특이한 알싸한 향이 우리의 미각을 자극하여 잃어버린 봄의 입맛을 찾는데 도움을 준다. 체내의 염분을 몸 밖으로 배출하고, 동맥경화증,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에도 효과가 좋다.

7. 고소한 맛, 봄동

겨울이 지나고 나오는 봄동은 배추보다 작고 뽕뽕하지만 씹는 맛이 고소하고 좋다. 봄동은 비타민 C와 칼슘이 풍부하여 잃었던 입맛을 되찾는데 도움을 준다.

8. 정신을 맑게 하는 돌미나리

비타민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인 미나리는 식욕을 증진시키고 정신을 맑게 한다. 해독 해열작용이 뛰어나 각종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유용하다.

9. 단맛 나는 유채나물

유채나물은 단맛이 나는 나물 중의 하나다. 우리가 흔히 먹는 유채나물은 유채의 어린잎을 따서 먹는다. 봄나물의 특징이 비슷하지만, 유채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아 봄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여주고, 나른해지는 춘곤증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

10.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두릅

두릅에는 비타민 C와 B1 외에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칼슘이 많이 들어 있어 마음을 편하게 해 주고, 불안, 초조감을 없애 준다. 또 혈당강화 작용이 있어 당뇨병 때문에 기력이 없고 머리가 아픈 사람에게도 좋다.

출처 내일신문





은총을 입은 아들이, 딸아

귀한 아들 ○○아, 너는 복있는 사람이다. 너는 의인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너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란다. 복있는 사람 ○○아, 너는 그 행사가 다 통할 거야.

의인된 아들 ○○아, 네게는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야.

복의 통로인 아들이,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네가 밟는 모든 땅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야.

감사를 아는 아들이, 너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생명의 복을 받을 사랑하는 내 아들이란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아들 ○○아, 너는 평생 손을 퍼 나누어 주며 꾸어 주며 살 거야.

존귀한 아들 ○○아, 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아들 ○○아, 네 인생은 사랑으로 풍성할 거야.

믿음의 아들 ○○아, 너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 거야.

아들이, 기뻐하거라 너는 하나님이 마음 놓고 복을 주실 복의 표적이다.

새벽 이슬같은 아들 ○○아,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이 평생 너와 함께 할 거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들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 주변에 너를 돕는 사람이 많을 거야.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누릴 아들 ○○아,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야.

충명한 아들 ○○아, 네 명철의 근원인 하나님의 지혜가 평생 너와 함께 할 거야.

심령의 낙을 누리며 살 아들 ○○아, 넌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을 확장하는 인생을 살 거야.

아들이, 평강의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너와 함께 하시며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거야.

착한 아들 ○○아,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할 거야.

나의 면류관인 보석같은 아들 ○○아, 네 인생은 기대되는 인생이다.

복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아,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이 네게 임하리라.

이 기도문은 감자탕교회 조현삼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글을 쓰셔서 자녀들 책상 앞에 붙여 주셨는데 사모님이 잠들기 전에 아이들에게 읽어 주셨다고 한다. 아이들이 기도문을 너무 좋아하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그 축복대로 자녀들에게 복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이 넘쳐 그 교회 온 성도들에게도 소개한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이다. 5월은 가정의 달, 자녀는 부모의 사랑과 축복을 먹고 자란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소중한 자녀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며 믿음으로 축복할 때 그 축복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 이 세상을 변화시킬 믿음의 주역들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것을 확신한다.

편집부 제공



크리스천 명언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 C.T. 스톨드

***“Only one life, ’twill soon be past,
Only what’s done for Christ will last.”***
- C.T. Studd



커피 여행



사진출처: <http://www.foodandtravelfun.com/wp-content/uploads/2015/03/Coffee-Beans-Coffee.jpg>

2015년 임마누엘지와 커피 여행을 떠나려 한다.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 알게 되고, 알게 되니 더 찾게 되고, 찾고 보니 커피를 더 좋아하게 되어 커피 애호가 가 되었다.

커피 여행의 출발은 커피 품종부터 시작!

커피의 품종은 아라비카, 로부스타, 라이베리아 3가지 원종이 있다.

아라비카(Arabica)는 이티오피아가 원산지이고 해발 500미터 이상 고지대에서 재배되며 다른 품종에 비해 카페인이 적고 병충해에는 약하지만 미각적으로 우수한 커피이기에 전세계 커피 생산량의 75%를 차지한다.

로부스타(Robusta)는 콩고가 원산지이고 평지나 해발 600미터 사이 저지대에서 잘 자라고 병충해에 강하며 아라비카에 비해 카페인 함유량이 최고 두배 이상 차이가 나며, 향은 덜하고 쓴맛이 강하여 주로 인스턴트 커피 종류에 많이 사용된다.

라이베리아(Liberia)는 뿌리가 깊어 저온이나 병충해에 강하지만 향과 맛이 별로여서 상품성이 없어 거의 산출량이 없다.

커피 품종 3가지의 특성만 알아도 우리가 흔히 원두 커피라 부르는 것들의 대부분은 아라비카Bean임을 알 수 있다. 보통 드립은 아라비카 종으로, 에스프레소는 아라비카와 로부스타를 블렌딩하여 많이 사용한다. 커피나무 종류, 토양, 고도, 기후, 재배 방법 등에 따라 커피의 품질, 향, 맛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커피를 얘기할 때 원산지, 재배 지역 이름(향 구이름, 특성 등)을 따라 커피 이름을 붙인다. 예를 들면 Brazil Santos, Colombian Supremo 처럼.

커피 나무는 다년생 쌍떡잎 식물로 100여 종이 있다고 한다. 커피 나무 열매가 빨갭게 익으면 커피체리라고 부르고 그 안에 생두가 들어 있는데 생두가 하나 들어 있으면 피베리(Peaberry), 두 개면 플랫빈 (flat bean) 이라고 한다. 이 생두를 여러 가지 가공방식(건조방식)이 있는데 가공 후 연두색 생두가 로스팅 과정을 거쳐 우리가 구입하는 커피가 된다.

연두색 생두를 로스팅하면서 색상이 연두->노랑->밝은브라운->미디움브라운->다크브라운->다크 단계로 변한다.

생두 색의 변화와 맛과 향의 변화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로스팅 정도	색상	향	맛
라이트 로스팅	연한 황갈색	신향	강한 신맛
미디움 로스팅	밤색	신향+단향	중간 단맛과 신맛, 약한 쓴맛
시티 로스팅	갈색	고유의 향	강한 단맛과 쓴맛, 약한 신맛
프렌치 로스팅	흑 갈색	향 감소	강한 쓴맛, 약한 단맛과 신맛
이탈리안 로스팅	흑색	향 감소	매우 강한 쓴맛, 약한 단맛

커피 재배과정 중 커피나무 종류, 토양, 고도, 기후, 재배 방법에 따라 커피 향, 맛, 품질이 다르고 수확 후 커피 가공방식(건조방식), 로스팅 정도에 따라 커피 맛과 향이 또 달라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피를 우려내는 방식(추출방식)에 따라 다시 한번 커피 맛이 달라진다.

여행 중 커피 한잔의 여유

커피를 가장 신선하고 맛있게 마시는 방법 중 첫 번째를 꼽으라면 원두 커피를 만들기 직전에 갈아, 우려내서 마시는 것이다. 그렇기에 원두 커피는 갈아져 있는 것을 사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은 방법이다. 갈아 놓으면 그 시간부터 바로 커피 맛과 향은 달아나기 시작한다. 그렇기에 커피를 가장 신선하고 맛있게 먹으려면 커피 그라인더(커피 가는 기계)는 필수가 되어 버린다. 고른 굵기로 커피를 가는 것은 커피 애호가들에게는 무척이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원두커피는 내리는 방식에 따라 커피를 우려내는 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정해진 시간 안에 굵게 갈린 커피는 아직 충분히 우려지지 않고 너무 곱게 갈린 커피는 벌써 충분한 양이 우려져서 떫은 맛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간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커피 애호가이지만 I love coffee라는 표현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커피를 사랑하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단호히 말한다. 커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커피를 마시며 이웃들과의 나눔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싶다. 텃밭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접촉점인 것이다. 다음 여행지는 커피 이름과 맛으로 가보려 한다. 그럼 다음 호에서...

글 김범진



하박국의 초월감사

감사에 눈뜨면 감사의 조건은 그리 먼 데 있지 않고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다. 따스한 가정이 있고, 의지할 부모 형제가 있고, 일할 직장이 있고, 일용할 양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자연의 아름다움이 있고, 예배드릴 교회가 있고, 사랑을 나눌 성도가 있다. 특별히 내가 구원받은 사실은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 된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시험조차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게 유익한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 하나님은 환난과 고통 속에 정금과 같은 보화를 숨겨 놓으셨기 때문이다.

환난 가운데서도 굳건히 하나님만 붙들고 그 분이 숨겨놓은 보화를 발견한 인물이 있다면 단연 하박국일 것이다. 하박국의 감사는 다가 올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 드린 환난날의 감사였다. 전쟁이 곧 엄습할 상황, 그것도 당시 가장 강

한 나라 바벨론이 유대나라를 침략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한 그는 극한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의 마음은 전쟁의 공포에 사로잡혀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고통을 느꼈다. 또한 전쟁으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성전은 파괴되어 폐허로 변하고 수 많은 백성이 목숨을 잃는 아비규환의 상황을 떠올리자 그는 괴로워 견딜 수 없었다. 그런 환난 날에 그는 주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의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그러자 그의 기도가 마침내 감사 기도로 변했다.

나무는 가뭄에 뿌리가 깊어지고 겨울의 찬바람에 단단해지며 여름 폭풍우와 불볕 더위를 견뎌야만 잘 익은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된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히려 시련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감사를 가져온다. 하박국은 환난을 통하여 심지가 견고한 감사의 신앙을 지니게 되었으며 오히려 환난과 시련의 때에 감사의 노래를 배우게 되었다. 하박국의 감사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 드린 감사라는 것이다. “17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



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찌라도 18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19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합3:17-19)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다. 이미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중한 보배를 소유했기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해야 한다. 비록 나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은 나의 감사의 노래가 되시며 감사의 제목이시다. 진정한 감사는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는 감사이다. 없을수록 더욱 감사하는 신앙, 구원의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신앙, 이것이 하박국의 감사 신앙이다.

‘평생 감사’ (전광 지음)에서

종려나무



사진출처: <http://m.blog.daum.net/fbsaaa/124#>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요 12:13)

성경에 등장하는 식물 중 종려나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북가주 산호세에서도 흔하게 종려나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훨씬한 키에 분수처럼 뺨은 나뭇잎은 이국적 정취를 느끼게 하는데 제격이기에 특별히 사탕물에는 종려나무를 의도적으로 많이 심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멋있다 정도의 느낌만으로 지나친 그 나무들이 성경에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종려나무에 관하여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성경구절은 바로 이 글 서두에 언급한 요한복음 12장13절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많은 나뭇가지 가운데 특별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흔들었을까에 대한 해답은 이스라엘 역사와 지리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고대부터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식물이었습니다. 주전 15세기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투트모세 3세는 므깃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반역을 진압하고, 카르낙 신전에 이 사건을 벽화로 그렸는데, 그 벽화에는 가나안 땅의 상징인 종려나무 열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3천5백 년이나 된 관계인 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다가 멀리서 종려나무가 보이면, 그것이 근처에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종려나무가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섭씨 45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는, 뿌리가 있는 부근에 물이 잘 공급될 수 있는 장소여야 최적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행진할 때 사막의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쁨 중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 오아시스 옆에 있는 종려나무 아래서 머물렀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 샘 열둘과 종려나무 일흔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출15:27)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오아시스에서 자주 보았을 나무이며, 또한 그들에게 그들과 양식을 제공해 주던 나무였습니다. 랍비들이 해석하기를 초막절 행사 때 가져와야 하는 네 가지 식물 중 종려나무 가지는 바로 '광야에서의 삶'을 기억하라는 의도가 있다고 합니다. 즉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지날 때의 삶을 기억하도록 해주는 도구였습니다. 또한 종려나무는 바벨론 포로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승리'를 상징했습니다. 왜냐하면 종려나무는 죽은 나무에서 다시 새순이 돋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를 가리켜서 '죽음을 이기고(승리) 다시 사는 나무'라는 의미에서 '승리'라는 상징을 부여했습니다.

종려나무의 식물학 이름은 'Phoenix dactylifera'입니다. 이름 가운데 불사조를 뜻하는 Phoenix가 붙어 있는 것이 흥미로운데 종려나무는 다 베고 남은 그루터기를 불에 태워도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자라납니다. 이런 종려나무의 특징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종려나무는 승리와 부활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로마의 압제를 받으며 로마에 대항한 유대인들의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한 유대 사람들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들이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막에 우뚝 서 있는 종려나무와 같습니다. 바로 여기에 오아시스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종려나무가 바로 이 땅의 교회입니다. 참 진리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생수의 근원되시는 예수님을 알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위에 우뚝 서 있는 종려나무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떠올리십시오. 어떤 핍박과 위협 앞에서도 겁내지 않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불사조같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잡으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계 7:9)

우리도 언젠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종려 가지를 들고 찬양할 기대 속에서 허락하신 귀한 인생을 '생수' 되신 예수님을 알리며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글 김태오 목사

내 인생의 퍼즐 한 조각

밤송이처럼 자꾸만 찢러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지 깔끄럽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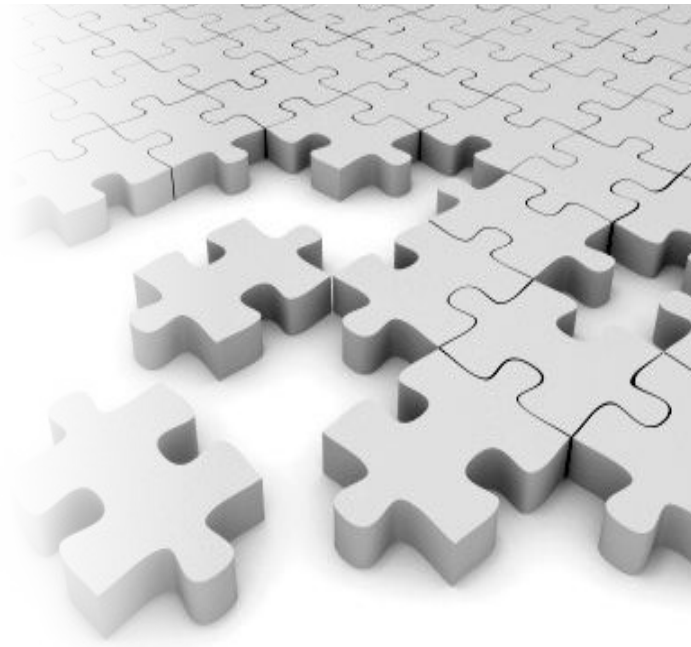
“하나님, 저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나요?”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단다”
 “.....”

밤송이 같이 뽀족한 사람을 품는 법을 조금씩
 배워 나가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배웁니다.

그는, 작은 그릇을 넓히고
 모난 인격을 다듬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선물.

내 인생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퍼즐 한 조각 같은 사람이란 걸.

- 윤필교 -



'One Another' in the Bible



요13: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롬12:10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
 기를 서로 먼저 하며

롬12:16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갈5:13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
 로 중 노릇하라

갈6:2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엡4:2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엡4:32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엡5:19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골3:9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
 를 벗어 버리고

골3:13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히10:24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히13:16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 주기를 잊지 말
 라 이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약5:9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
 판을 면하리라

약5:16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
 하여 서로 기도하라

벧전4:8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찌니 사랑
 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벧전4:10 각각 은사를 받은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
 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벧전5:5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요일4:7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
 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 그루의 나무 이야기



어느 산마루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세 나무 모두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나무의 꿈은 언젠가 자신이 금으로 입혀진 보석함이 되어 이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담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나무의 꿈은 바다를 여행하는 군함이 되어 왕을 태우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나무의 꿈은 이 산마루에서 가장 높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 주는 사랑받는 나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 나무는 함께 모여 그들의 꿈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자주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들이 이 산마루에 올라 첫째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금으로 입혀진 보석함이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농부에게 팔려가 외양간에서 소나 말을 먹이는 여물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실망했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나무꾼들이 둘째 나무를 자르기 시작할 때 그는 이제 바다를 여행하는 군함이 되어 왕을 태우는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어느 어부에게 팔려가 작은 어선으로 호숫가에 띄워졌습니다. 군함이 되기에 그는 너무 연약했던 것입니다. 그 역시 실망했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무꾼이 셋째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을 때 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꿈은 거기에 그대로 남아 높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어진 그는 어느 목수에게 팔려가 집 뒤뜰에 버려졌습니다. 그도 실망했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수년이 흐른 어느 날, 말구유가 된 첫째 나무에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아기가 태어나 그 품에 안기었습니다. 이 아기의 이름은 예수라고 불렸습니다. 호수에 떠다니던 둘째 나무에게도 사건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그의 배에 한 분이 오르자 그의 제자들이 함께 올랐습니다. 그분은 갑자기 일어난 폭풍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며 바다를 한마디로 꾸짖었고 호수는 곧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에게 엎디어 그분을 주님과 왕으로 경배하였습니다. 이때 그는 비로소 그가 왕 중의 왕을 모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목수에게 팔려 집 뒤뜰에 버려졌던 셋째 나무는 어느 날 로마 군인들의 청탁으로 십자가 나무가 되어 갈보리 높은 언덕에 세워졌습니다. 그에게는 그의 친구 첫째 나무에서 태어나고 둘째 나무가 태우고 다니던 갈릴리 사람 예수라는 분이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원래의 꿈처럼 하나님을 보여 주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세 나무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그들의 꿈은 오래 전 함께 모여 기도하던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엔젤라 엘웰 힌트

수렁에서 건짐 받은 주님의 딸

저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집안도 그랬고 불교 재단의 여중고를 다니며 불교 학회 활동도 했습니다. 7년 전 남편 직장으로 인해 미국에 와서도 불교 모임을 나가며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전도 3명만 하면 천국 간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어디서 들었는지 저 분들이 천국 가려고 저를 이용한다고 생각하며 곳곳이 버텼습니다. 사실 그 과정 속에서 제 마음은 많이 흔들리고 있었고 아이를 키우며 살아 갈수록 그 안에서 한계를 조금씩 느끼고 있었습니다. 뜻밖의 일이 생기면 내 업보려니 하고 속으로 쌓아두며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참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종교를 바꾸면 집안에 큰일이 생긴다는 세상 말로 인해 두려워 포기하기도 했고 교회 가기가 귀찮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재 작년 남편 회사가 갑자기 SHUT DOWN 되었습니다. 7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남편의 재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 기존의 삶에서 그 선 아래로 아래로 떨어지니 열등감, 시기, 분노가 있는 제 안을 보며 우울해졌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법정 스님의 책이나 법문을 들었지만 점점 더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지니 사람 만나기도 싫고 남편 얼굴도 마주하는게 싫어 방에서 드라마만 봤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 가장 나쁜 생각으로 치달고 있었을 때 친한 언니가 교회 한번 꼭 가보자고 권유해서 따라 갔고 몇주 뒤 남편은 취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다시 가서 감사는 하고 오는게도 리인듯 싶어 혼자 1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좋은신 하나님... 참 좋은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에 울컥했지만 억누르고 교회는 마지막이다 라며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재취업 후에도 제 마음엔 공허함과 무언지 모르는 외로움과 우울감이 계속되었고 남편과 아이에게도 불만이 쌓여 갔습니다. 그 당시 딸이 크리스천 합창단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음을 잘 잡지 못하여 노래 연습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마침 성경책도 선물받고 설교 CD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예수님의 노크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영접 후 저는 그 과정에 많은 영적 싸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악몽과 가

위놀림의 시달림에 정말 수 많은 밤들을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았습니다. 별로 기도해 본 적도, 성경책 제대로 본적도 없던 저는 그 가위놀림 속에서 ‘하나님, 살려 주세요’ 만을 외쳤고 그 어둠 속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절 지켜 주셨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친척 언니에게 물었더니 이것은 영적 싸움이고 100% 하나님이 승리하시니 기도와 말씀을 읽으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러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됴이러...” (사4:10)



성경책을 선물 받았을 때 마커 칠해진 이 말씀을 믿으며 낮에는 찬양과 주기도문을 외우며 그 공포에서 깨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시달림이 적어져 잠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저는 일대일 양육을 통해 인격적인 사랑도 받으며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읽기, 쓰기, 암송, 큐티, 기도’ 이 훈련을 반복하며 저의 공허함과 외로움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졌고 저의 의지로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이 필요없다고 생각했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저는 큐티를 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옴기’ 큐티를 하며 옴의 고백처럼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교제의 재미를 알아가고 있을 때 즈음 제게 다시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재취업한 남편의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져 많은 사람들이 레이오프가 되었고 제 남편도 포함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땐 다리가 풀

려 주저 앉았습니다. 재취업 후 10개월 만에 다시 실직 상태가 된다는 것에 눈 앞이 캄캄해 며칠 동안 예수님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때 창세기로 큐티를 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넘치는 위로와 사랑을 주셨고 하나님 은혜로 저는 일을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일터로 향하는 차 안에서 예수님은 저의 말동무가 되어 주셨고 밤에는 성경 말씀으로 마음과 아픈 다리를 만져 주셨습니다.

처음 기도의 시작은 제 마음의 위로 받음으로 시작되었지만 성령님께서서는 제 기도를 이끌어 주셨고 사랑에 대한 저의 관점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내 자신과 가족,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로 한정되었던 저를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사랑은 지체들에게 흘러야 하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고통속에 예수님과 사랑이 단절되신 분들, 숨어서 예수님을 믿고 전파하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들이 느껴지게 되어 그 지체들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4개월 후 남편은 예전 직장, 같은 포지션으로 복귀 되었습니다. 남편 또한 그 기간 예수님을 만나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도, 영접 후에도 남편의 실직을 겪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지 않았을 때와 계시 때의 차이는 지옥과 천국이었습니다. 제 손에 쥐어져야 전부인 줄 알았던 세상에서 말씀처럼 “내 양을 치고 먹으며” 주님을 따르는 삶에 소망을 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 대단하지 않아서 시련이나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저를 다시 일으켜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신 주님께 나아가는 앞으로의 길이 신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저를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글 이현정



주 없인 살 수 없네

아주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아프던 병이 낫고, 거짓말이 들끓는 등, 신기한 일들을 만들어 내는 어머니의 기도는 나의 간증거리였다. 집을 떠나 살면서 힘들 때마다 어머니를 떠올리며 찾았던 하나님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나를 살리시고, 결혼을 허락하시는 등, 내 삶에도 풍성한 간증거리를 허락하셨다. 신기하게도, 믿고 발걸음만 내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것 같았다.

어느 날 하나님께선 유학생인 나에게 기적같은 직장자리를 주셨다. 하지만 선교를 떠나면 직장을 잃고 다시는 미국 땅을 밟을 수 없는 상황도 함께 주셨다. 꼭 내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 같았다. 우리 부부와 갓 태어난 딸의 미래까지 망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지만, “죽으면 죽으리라”하며 선교 길에 나섰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믿음의 장성했다고 생각하며 떠난 네팔 선교는 정말 황홀했다. 하나님도 기

특하게 보셨는지, 선교가 끝난 후 보란 듯이 미국 땅을 다시 밟게 하셨고, 직장도 문제없이 다니게 하셨으며, 더불어 둘째 아이도 허락하셨다. 이렇게 놀라운 간증들이 늘어남에 따라 나의 신앙도 자란 줄 알았다.

하지만 이 감격의 순간들이 단 몇 주 만에 무너져 내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겨워졌고, 특 하면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고 있었다. 내 모습은 오히려 주님을 만나기 전보다 형편없었다. 알 수 없는 이 현상으로 인해 고민하며 잘못을 알려 달라고 기도했다. 나의 자랑이었던 간증과 대표 기도들이 영상처럼 떠올랐다. 교만의 절정에 서서 청중을 향해, ‘너희들은 이거 몰랐지? 잘 들어봐!’라고 외치던 내가 보였다. 네팔로 떠날 때의 고백도 내 것이 아님이 드러났다. ‘저도 힘들었거든요? 하나님만 하신거 아니잖아요’ 모든 기적의 순간마다 내 뉘를 주장하며 영광을 험상하던 내가 보였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 100% 영광을 돌려

본 일이 없었기에 내 신앙은 가짜였음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그렇게 본성이 발각되자 나는 때아닌 방향을 시작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마7:21) 는 분명 나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고민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을 부정할 수 없었다. 믿지도 못하고, 말지도 못하고... 너무 답답해서 손원배 목사님을 찾아가니, 책 한 권을 빌려 주시며 격려해 주셨다. 그 책에 나온 19명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다 절대 예수님의 모습에 다다를 수 없음을 절망한다. 하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발견하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 분명 이것은 나도 아는 사실인데, 난 변하지 않으니 미칠지경이었다.

교회에서 가정예배를 장려하기 시작할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따라갔다. 처음엔 5분 10분 하던 예배가, 한두 달 후엔 2시간을 넘기더니, 몇 년을 노력해도 끊어지지 않던 은밀한 죄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 사람이 죄 짓는 것은 당연하며, 성경의 경건한 삶은 천국에 가셔야 가능하다 생각했는데, 뉘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그저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조금 늘린 것 뿐이었다. 내가 자라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됐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형편없는 나도 예수님의 모습을 비출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하루 몇 시간 바라봄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는데 24시간 성령님을 바라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는 것 같았다.

그렇게 성령님과의 동행 연습이 시작되었다. 내 삶에서 혼자하던 일들이 하나 하나 사라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가며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이 믿어지기 시작했다. 직장일을 바꿔본 건 놀라운 경험이었다. 일에 몰두하다 보면 성령님을 잊어 버리기 일쑤여서, 의도적으로 멈추고 성령님을 찾았다. 집중해서 일해도 힘들 판국에 중간에 자꾸 멈추니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관심 없던 혼자하던 작은 프로젝트에, 여러 매니저들이 관심을 갖

고, 사람이 불고, 팀장이 보호해 주기 시작했다. 가장 놀라운 건 집에서의 변화였다. 몸이 피곤하면 당연히 아이들에게 짜증을 부렸는데,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나도 놀란다. 전날 밤을 새우고 아무리 피곤해도,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몸 안에서 알 수 없는 기운들이 솟아나와 즐거운 가족 시간을 마무리 짓는다. 성령님을 바라보면 이렇게 새로운데, 그렇지 않으면 원래의 더러운 성격으로 되돌아가니, 집사람이 매우 혼란스러웠으리라.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으니 당연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동행연습이 잘되고 있을 때 어느 마켓에서 사기꾼에게 봉변을 당하게 되었다. 다행히 별 탈 없이 지나 갔지만 마음 속에 성령님은 사라지시고 도와주지 않던 주변사람들과 경찰들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다. 정작 위급한 순간에선 주님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나를 발견했다. 갑자기 절망감이 찾아왔다. 예전 같으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무사히 넘겼다고 간증하며, 또 잘 해결한 일을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할 내가, 절망감에 빠져 있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았다. 순간, 절망의 원인이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순간 때문임이 깨달아지더니, 마음속에 찬양이 울려 퍼졌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인 살 수 없네”.

난 주 없인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 가고 있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주님과 동행 연습을 하는 동안 평안함에 익숙해져, 회사에서의 작은 스트레스조차 힘겨워하고 있었다. 주님없이 혼자선 아무것도 못하는 자. 혼자선 세상에서 점점 쓸모없는 자가 되어 가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가 되니 세상의 절망이 오히려 나에게겐 희망으로 다가온다. 나이가 들어가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더 줄어들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다가 천국으로 가는 길이니 얼마나 복된 길일까?

글 김대아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자!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가정에서 교회와 가깝게 지내며 자랐습니다. 부모님께서도 교회를 다니셨지만 신앙인의 모습보다는 종교인의 모습에 가까우셨습니다. 그러다 20살때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가며 그곳에서 참된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놀랍고 부러운 분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나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주님 한분만으로 인해 평안하게 사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캐나다를 다녀온 후 저에게 “이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온 것이니라”(요한일서 2:16)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주님이 저에게 단기 선교의 길을 열어 주셔서 1년 동안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선교의 현장은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이기 이전에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지만 진정 살아있는 복음의 선포는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알게 하고 홀로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단기 선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로 경제적인 후원을 받지 못했던 유학생 생활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예수님은 뒷전에 모셔 두고 저의 삶이 힘들다는 이유로 신앙을 가장 먼저 포기했습니다. 어떻게 온 유학인데 이곳에서 살아 남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맘 속으로는 주님밖에 없다 하였지만 삶은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결혼만은 믿는 사람과 해야한다 생각해 교회에서 만난 청년과 결혼 하였지만 결혼생활 역시 저의 이미 굳어진 마음과 세상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 모든 것이 불안과 불평의 연속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렇지 않았지만 이미 저의 마음은 힘들다를 매일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잘 다녔습니다.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땐 주님만이 살 길이라며 매달리기도 하고... 하지만 변하지 않는 저의 삶은 저를 늘 불안하고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아내와 엄마의 모습으로 인해 남편과 아이들은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던 중 춘천 한마음 교회의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편 두 편 보며 참 좋다, 나도 저런 신앙 아는데...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 그 사람들의 간증을 보며 나오는 별개의 간증이라 생각했습니다. 한 두세 달쯤 간증을 보다 저에게 힘든 일이 닥치게 되었는데 그건 엄마와의 갈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은 마음을 주려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엄마와의 어린시절, 엄마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저를 짓누를 때 김성로 목사님의 설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선포하신 말씀은 내가 내 마음의 주인되어 예수님의 주인되심을 거부하며 살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여졌습니다. 이천 년 전 세상에 아기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박혀 돌아가시고 장사지낸 지 사흘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려 하셨다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며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그냥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구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깊은 회개가 나왔습니다.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포한 말씀,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다는 것을 선포하지 않았습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심을 선포하지 않았습다. 그들이 선포한 것은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들은 유대인들은 모두 어찌할꼬라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 (사도행전 2:38) 그 말씀 그리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라 라고 하신 그 사명을 붙잡고 오늘도 기쁨으로 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글 황지영

내 인생의 골든 타임



작년 인도 단기 선교를 다녀 오신 저희 목자님이 단기 선교에 같이 참여할 것을 목장 모임에서 여러번 권유하셨지만 선교에 대한 부담으로 선뜻 결정을 못하고 있던 저를 선교 등록 마지막 날 신청 테이블 앞에서 일단 신청하고 보자며 저의 손을 붙잡고 결국은 등록을 시키셨습니다. 몇 달 후 회사 사정상 12월에 휴가를 낼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선교를 위한 훈련도 이미 시작되어서 선교 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할 때가 되었습니다. 기도도 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결정만 하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크게 잘못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목자님은 좀 더 기도하며 기다려 보자고 하셨고 그 와중에 회사에서 구조 조정이 있었고 저 또한 그 안에 포함 되었습니다. 선교 참여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갑자기 직장을 잃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 저는 선교를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좀 더 기도해 보자고 하셨던 목자님도 다음 기회에 가자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소식을 들으신 목사님께서서는 제 인생에 있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내 인생의 골든 타임이 저에게 찾아 왔다고 하시며, 기도로 선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구하던 중에, 처음 하나님을 만난 후 지금까지 저희 가정의 삶을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가 평안하게 선교를 결정할 수 있는 마음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교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후 며칠 뒤, 저의 구조 조정을 안타까워 하던 다른 팀의 매니저가 급

히 자기 팀의 총원 계획을 앞당겨 채용 공고를 내주었고, 제가 신청하여서 같은 날 인터뷰를 보게 해 주었지만, 전혀 일하지 않았던 분야였던 터라 많은 기대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날은 공교롭게도 제가 선교를 위해 제 인생 처음으로 하는 일일 금식을 시작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회사 컴퓨터와 배지를 반납하려고 출근하였는데, 갑자기 전날 인터뷰한 팀으로부터 JOB OFFER를 받고 그날로 그 팀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퇴사를 하루 앞두고 생긴 일입니다. 다른 팀이지만 같은 회사이다 보니 적응하기도 쉬웠고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까지 몇 개월의 적응 기간이 주어졌으며, 선교 기간 동안의 휴가 또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선교를 가기에 가장 좋은 여건으로 변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선교가는 것을 뺀 모든 것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 놓아 주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준비하면서 늘 걱정과 불안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교를 우선하여 결정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선교 훈련의 시간은 저에게 은혜의 시간이었고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을 통해 저를 준비시키시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허락하여 주신 저의 첫 선교에 대한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인도는 비행시간만 20시간이 넘는 먼 곳이었습니다. 길 여기 저기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 더미와 그 주위의 소들, 다리 밑, 담장 밑 또는 벌판 위에 펼쳐진 천막 집들, 가난하게 사는 인도 사람들의 생활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열악했습니다. 차선도, 교통 법규도, 사람을 위한 양보도 없는 복잡한 도심을 지나 고속도로로 두세 시간을 가서 가정들을 방문하였으며 네 명이 한 팀이 된 우리는 준비해 간 힌두어 찬양, 이벤지 큐브 및 간증 등의 순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 보는 외국인들에 대한 생소함도 있었지만 모였던 사람들이 서서히 주님을 받아들이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각 마을의 입구마다 세워져 있는 힌두 우상들, 우상인 코끼리 모양을 한 산과 그곳에 있는 신당,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우스웠던 코코넛 우상, 그곳에는 우리의 상식과 상상을 초월하는 수많은

은 힌두 우상들을 너무나도 쉽게 마주칠 수 있었고 무수한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우상이 가득한 가운데 방문한 집에서 가끔씩 보는 십자가와 예수님 그림들은 저희들에게 인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구자랏 북부 지역을 담당하는 한 사역자는 통역을 하고 찬양을 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또 모인 사람들에게 따라하게 하고 찬양을 독려했습니다. 그분의 열정적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잊고 지냈던 저의 모습, 풍요로움과 안락함에 안주하여 복음 전파에 게을렀던 저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강경 힌두 세력의 정권 아래 폭력과 핍박, 금전적인 회유 속에서도 현지 사역자들은 불평없이, 두려움없이 묵묵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사역자의 여동생이 복음을 전하는 동네에서는 동네 분들과 함께 사역자의 어머니, 누나, 동생과 조카들이 함께 복음을 들었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한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과 형제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한국에 계시다는 핑계로 전도를 계속 미루어 왔던 가족들이 제가 감당하여야 할 또 다른 선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는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듯 인도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심을 제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시고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던 저의 믿음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의 전도와 올해 있을 단기 선교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선교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글 송오빈





나는 이제 막 유아기에서 벗어나 성장기에 접어든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다. 유아기 때에 하나님은 지치고 상한 나의 몸과 마음을 먼저 고쳐 주셨고 여러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셨다. 그리고 문 밖에서 안타깝게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이 회복되어 가는 가운데 나는 나를 내어 드리고 '나 대신 하나님이 중심된 삶'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어 전전긍긍 하였는데 그러던 중 동생을 잃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긴 어둠의 끝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찾았을 때 지금의 멘토를 만나게 해주셨다.

친절한 나의 멘토는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 주며 또 자신의 삶의 간증을 들려 주며 나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여 주었다. 창조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 성경말씀 등 알아 가야 할게 너무 많은데 시작하지 못하고 심각하기만 한 나에게 일대일 양육자로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차분히 말씀을 전해 주었다. 복잡하지 않고 구체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그의 자세처럼 명확하고 힘이 있어 기도를 하려고 작정하면 떠오르는 많은 사람들과 말들이 온통 뒤죽박죽되어 황설수설하게 되는 나에게 정말 닳고 싶은 점이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진심으로 사랑을 아끼지 않는 나의 멘토에게 더욱 닳고 싶은 건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나

타나지 않도록, 먼저 나서지 않도록 내면에서 치열한 싸움을 치루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멘토와의 일대일 제자 수업을 마치고 양육자반까지 받으며 나는 '하나님이 중심된 삶'이 겉으로 보이는 것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아야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다. 알고보니 너무 쉬운데 어렵게만 생각되었던 것이 한번에 해결되니 감격스럽고 기뻐다. 그러나 만땅된 밧데리처럼 의기충만했던 나는 실전에 접하자 완전 참패를 경험했다. 집안에선 너무나 훈련이 잘 되어있다고 스스로 생각한 내가 문밖으로 한발을 내어 던지 바로 나를 공격하는 건 사탄이라는 걸 직시하면서도 상대가 나를 공격했던 그 행위가 자꾸 생각나서 쉽게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긴 경건 훈련이 필요한 지 깊게 깨달았다. 이렇게 자꾸만 나타나는 나의 죄성과 반복되는 실패 속에 고개를 떨군 나에게 멘토는 사람의 행위가 아닌 영혼을 보려고 노력하자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자고 얘기해 준다.

내가 보기에 나는 외적으로는 비교적 온유해 보이지만 나의 내면은 양은 냄비 같아서 쉽게 달아 오르고 쉽게 식어버린다. 하루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리라'하는 선지자와 같은 마음이 넘치다가, 하루는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하고 외면하는 제자처럼 차갑고, 또 하루는 죄에 눌러 숨을 죽이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사춘기에 접어든 딸아이보다도 더 변덕스럽다. 이런 나의 상태를 너무 잘 아시고 오랜 시

간 뜨거운 열에 구워져 쉽게 달아 오르거나 쉽게 식어 버리지 않는 뚝배기와 같은 친절한 멘토를 내게 보내 주셨다. 하나님의 치밀하고 빈틈없는 계획 안에 맺어진 우리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감을 느낀다. 나 하나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완성시키기 위해 심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상상해 보며 감사드린다. 높은 곳에만 계신 줄 알았던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구속에 기쁘게 긴장한다. 처음처럼 변함없는 멘토가 옆에 있어서 나는 든든하다. 멘토의 권유로 성경 일독을 시작하게 되어 그 안에 숨겨진 진리를 찾는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4:23)

일대일 제자 양육자의 삶을 살며 참 많은 동반자들을 만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저에게 필요한 동반자를 허락해 주심으로 저에게 겸손을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저를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저를 멘토라고 불러주는 멘티의 고백들에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아야겠구나..' 하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나의 삶이 먼저 그리스도 중심된 삶의 모습이기를... 하나님 앞에 투명하고 솔직하기를... 내가 행어나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진정한 뚝배기의 삶을 살기를... 자꾸자꾸 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귀한 멘티를 통해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게으름으로 핑계치 않으며 열심히 가르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아프고 지친 자들을 사랑으로 품고 고침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글 멘티 이수연, 멘토 유정혜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데서...

“너는 나를 보았니, 그런데 왜 네 마음이 무겁니?”
최근에 본 어떤 간증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물으신 부분이 있었는데,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비슷한 질문을 던지셨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많이. ‘근심하지 마라. 나는 네가 근심하는게 싫다’ 유난히 딸의 걱정하는 모습을 싫어하시는 아버지, 걱정 잠금장치 하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찬송가 469장입니다. 이 곡과의 특별한 첫 만남은 대학 졸업 연주회 전날, 마지막 리허설을 마치고 연주홀에 혼자 앉아 갑자기 몰려오는 두려움과 싸우면서였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힘들 때 피아노 앞에 앉던 습관대로 저도 모르게 무언가를 치기 시작했는데, 치다보니 이곡이었습니다.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데서 많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는 곡조가 언제나 울려나와 내 영혼을 고이싸네**

그 곡을 처음친 게 아니었는데, 그날 따라 너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연주는 제가 하고 있었지만 제게 들리는 연주는 저의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흥내도 낼 수 없는, ‘어떤곳’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정말로 맑은 가락이 제 마음을 감싸는 것이었습니다. 어쩔 줄 몰라하던 불안한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평안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음을 정돈해야 할 때면, 자연스럽게 이 곡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도, 어떤 생각도 막을 수 없는, 영혼 깊은 곳까지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맛 보곤 했습니다.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감추인 보배로다
이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자 그 누구냐 안심임세**

처음에는 주시는 위로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음악은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실 때 쓰시는 하나의 작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참보화는, 위로도 (심지어) 평안도 아닌 하나님 자신이란 것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진정으로 깨달아 알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상당히 집요하셨습니다. ‘나를 보았니?’ ‘나로 만족할 수 있겠니?’ ‘만족할 수 있는 걸 아니?’ ‘마음 한 켠에 그늘 한점없이, 정말 나 하나로 즐거워 할 수 있겠니?’ ‘그럴 수 있는걸 알고 있니?’ 걱정하고 있을 때, 그리고 주신 위로나 감동에 흐뭇해 하고 있을 때조차도, 계속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반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드디어 체험하여 아는, ‘생명책에 이름 있음을 기뻐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는’ 그 맛을 보았습니다. 정말 이 보화는 누구도 캐낼 수가 없겠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떤 상황도 뺏지 못하는, 세상이 어쩔 수 없어 하는 보화라는 것을. 하나님을 정말 알아 보면 무겁던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란 것을.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당연한 사실인가를.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 저는 계속 나아가는 중입니다. NOT YET 이지만 ALREADY 의 맛을 이미 보았기에, 잡으려고 계속 나아갑니다. 왜 그렇게 걱정 근심이 미운 짓이며, 왜 그렇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지 점점 더 깊이 깨달아 갑니다. 저의 오르고 내림에 기대지 않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쉬지 않고 흘러 나오는 맑은 가락과 더불어서 말입니다. 그때 그 은혜를 힘입어서 독주회도 잘 마치고, 지도 교수님께 앙콜로 이 곡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워낙 무서운 분이셔서 지도받는 내내 말 한번 쉽게 걸어보지 못했었는데, ‘교수님께 음악은 있지만, 이것은 없답니다.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용기를 내서 이메일로 복음을 전한 것은 몇 년 전에 대예배 때 주신 말씀에 힘입어서 였는데, 교수님은 엉뚱한 이야기들로 답하셨더라고요. 시간이 다시 많이 흘렀습니다. 다시 교수님께 이메일을 띄워 보려합니다. 이제는 강건해야 가능하다는 그 연세가 되어 가시기에, 소중한 때로 여기고, 제가 졸업 연주회때 앙콜곡으로 선물해 드렸던 곡과 저의 간증도 같이 써서 보내 볼까 합니다.

**이 세상의 현란함 가는데 잠된 평안이 어디있나
우리 모두다 예수를 친구삼아 잠 평안을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글 정은하





미국에 온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이민자들의 삶이 모두가 하나의 드라마 같듯이 저의 삶 또한 역경의 연속이었고, 지금도 현재진행형 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살았어도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이곳에서 삶의 큰 차이점은 중심어가 신앙과 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성숙해 간다는 것이 저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지만 어쩌면 그렇게 믿음의 크기가 자라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저를 이곳 미국까지 오게 하셔서 주님을 제 생활의 중심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봄날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들과 눈을 들어 펼쳐진 푸른 초장과 파란 하늘의 아름다운 조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불안함과 어려움에도 때맞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거저 주시지 않고 오랜 시간 인내하고 비로소 그 가치를 알아 달콤함을 극대화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 주님을 향한 저의 마음이 완고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였지만 저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저를 단련하신 후에는 제가 정금같이 나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전도위원회 새가족 교육 찬양팀에서 오랜 기간 섬기고 있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찬양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에게 신앙생활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자그마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세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아버지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자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저 또한 아버지로부터 방치되어 크고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때 아버지와 동네를 함께 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막내인 저를 데리고 다니길 좋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엄한 아버지와 함께 걷어가는 것이 엄청 불편했는데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조그마한 손가락을 주무르면서 막내와의 사랑을 교감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그렇게 싫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힘센 손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저의 몸부림을 아셨을 아버지가 많이 서운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후 아버지의 손을 잡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허물며 어깨를 주물러 드리는 일이야... 아버지는 엄하고 참 재미없는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무뚝뚝함이야 그 유전자를 물려받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직 한국에서 살고 있었으면 아마 아이들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저의 관계와 비교 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요즘 늦게 일을 마치고 오면 아이

들이 각자 자기 방에서 나와 인사를 하고, 또 어깨를 주물러 주며, 따뜻하게 안아 주기도 합니다. 저는 아버지와 비교했을 때 엄청 성공한 아버지입니다. 미국에 오길 잘했습니다.

힘한 세상에 아이들에게 올바른 신앙심을 갖게 하여 착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심과 부모와 자식간에 따뜻한 교감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모의 밑거름으로 좋은 토양에서 상처받지 않고 성장할 기회를 주셨는데 이 사회와 세상에 자그마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의미있는 인생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동안 게으름으로 몇 번 드리지 못한 가정예배를 매주 빠지지 않고 드릴 수 있도록 아이들과 약속합니다.

글 박우정



찬양의 방법

찬양의 사전적 의미는 “칭찬하다, 갈채를 보내다, 존경 또는 인정을 표현하다, 말이나 노래로 높이다, 크게 보이게 하다, 영광을 돌리다...” 등입니다. 일상 생활 속에서 월드컵 경기나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후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이런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께만 방향을 맞추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기쁨과 칭찬, 박수와 탄성이 들어 있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 자체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사를 목상만 하고 있는 것은 찬양이 아니며, 어떤 모습이면 밖으로 드러나며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찬양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 찬양이라 할 때 노래로만 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경우를 볼 수 있고, 한편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말로 하지 왜 꼭 노래로 찬양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어떤 것이나 상관없지만 우리에게서 최대한 아름답고 귀한 소리로 찬양을 준비할 때, 노래가 가장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길 원하시는지 성경에서 몇 가지를 찾아서 함께 복습하는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1) 악기 연주로 찬양하기

시편 150:3-5 등 성경에는 하나님께 찬양할 때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악기 연주는 단순히 노래하는 것을 돕는 의미가 아니라 악기 연주 그 자체로도 충분한 찬양이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 손뼉 치며 찬양하기

시편 47:1, 98:8, 이사야 55:12 등 성경 말씀에 나와 있듯이, 손뼉을 치는 것은 단순히 박자를 맞추는 의미를 넘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만드는 또 하나의 형태인 줄 알 수 있습니다.



3) 손 들고 찬양하기

민수기 7:89, 사무엘상 4:4, 느헤미야 8:6, 시편 28:2, 63:4 등 성경 말씀에 나와 있듯이, 손을 드는 것은 네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그릇 날개와 같은 우리의 벌린 손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어린 아이가 아버지께 달려가 손을 들고 안아달라는 듯이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행복한다는 의미가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이 흠여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일어서서 찬양하기

성경 어디에도 찬양할 때 앉아서 등을 기대고 찬양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은 여러 부분을 통해서 (역대하 5:12, 7:6, 29:26, 시 135:2 등) 일어서는 자세가 찬양과 예배드리기에 적합한 자세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일어서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존경의 표시입니다. 만약 우리가 있는 곳에 대통령이 들어 오면 우리는 존경의 의미로 다 일어설 것입니다. 대통령이 와도 그럴진데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예배와 찬양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는 앉아 있을 수 만은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깨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앉아 있을 때 보다 서 있을 때 우리는 집중하고 깨어 있기가 더 쉬워 집니다.



5) 춤추며 찬양하기

사무엘하 6:14-16, 시편 30:11, 149:3, 출애굽기 15:20-21 등 성경 말씀에 나와 있듯이 춤을 추며 찬양하는 사람들 중 대표는 다윗 왕입니다. 그는 법궤를 가져올 때 얼마나 열심히 춤을 추었는지 바지가 흘러 내릴 정도였다는 것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춤추는 것은 그 자체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단지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춤을 추어야 할 상황과 흥분이 있다면 춤을 추는 것도 하나의 찬양임을 기억하며 자유함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정서로 볼 때 춤을 추며 찬양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한 형태임에는 분명함으로 앞으로 나름대로 우리 정서에 맞게 개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 지이다.” (시편149:1)

이제는 성경에 기록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늘 기억하며 함께 찬양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신다면,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 반응이 주님에게 보여질 때 그분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글 김우찬 (2부 찬양팀)

플라스틱 물병의 진실



공기, 물, 태양.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면 과연 얼마가 될까? 하나님께서는 너무 비싼 것들은 공짜로 만드신 게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많은 비유로 설명하셨지만 그 중에 한가지가 생명수, 물로 비유하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우리의 죄로 매일마다 오염을 시키지만 다시 그분으로 하여금 정결케 되는 영적인 여정에 놓여 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희생으로 내어 주신 생명수를 오염시키는 것과 같이, 우리의 강력한 죄성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H₂O 역시 매일마다 생활 속에서 오염되어지고 있다. 최근에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비스페놀 A(BISPHENOL A, 이하 BPA)는 우리 생활 중에 사단의 누룩처럼 퍼지고 있는 화학 물질이다. 1891년 러시아 화학자 알렉산더 디아닌에 의해 개발된 이 물질은 1950년도에 들어와 전 세계적으로 식품과 음료 포장에 쓰이기 시작했다. 이것이 인체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중요한 병태 생리학적 원인은 이것의 구조가 인체의 여성 호르몬과 흡사하여 흡수되었을 경우 호르몬계 특히 성호르몬계의 교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영으로나 육으로나 진리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뿐임에도 그와 흡사한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말세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만 같다. 많은 국가들에서는 이미 아기 젖병에서는 BPA 사용을 금지시켰으나 다른 물품들에서는 현재의 수치로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용 금지를 뒤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플라스틱 재활용번호 1번부터 6번까지는 안전하다고 발표했지만 이것도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BPA는 합성 에스트로겐으로 간주되며 물로 세척하거나 열을 가하거나 충격이 가해졌을 때 플라스틱 용기로부터 잘 떨어져 나온다. 특히 전자렌지, 식기 세척기, 주방세제 사용에 그 농도가 더 욱 증가된다. 건강에 미치는 직접적인 문제에 대하여 미국 정부의 지원하에 2006년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전문가들의 모임이 개최되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BPA가 전립선, 유방, 고환, 유선, 체형, 뇌구조와 화학, 행동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비만, 당뇨, 기억력 장애, 갑상선 부전, 백혈병, 유방암, 뇌종양, 전립선암, 발기부전, 성욕감퇴 등이 거론되었다. 미국에 사는 현대인 중 플라스틱병의 물을 먹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심지어 캘리포니아 태양빛 아래, 자동차 컵꽂이에 꽂힌 플라스틱병의 물을 엄마 한 입, 아기 한 입 이렇게 마시는 것이 우리의 일상 생활이 아니던가. 이 화학 물이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에 누룩처럼 침투되어 있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셀 수 없이 많은 해악에 대한 논문이 쏟아져 나오는데 왜 이것의 사용이 중단되지 않는 것일까? BPA를 금지하지 않는 미국 정부나 이것을 만든 세상 사람을 지탄하기에 앞서,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볼 때이다. 비록 육체가 불편함을 겪을지라도 주님의 성전을 정결케하는 노력이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다. 우리가 편안함이라는 쾌락을 갈망하는 한 이와 같은 독극물은 계속해서 진화될 것이다. 이 퍼져가는 독극물로 허망하게 병들어 죽는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얼마나 많을지 생각해 본다. 건강을 생각하며 일평생 살아와도 유방암과 갑상선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듣는가. 그가 단지 플라스틱 물병을 사서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그리 되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이 그것을 아무리 감추

어도 이것이 절대 이유가 아니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단의 거짓선지자를 분별하듯, 세상의 거짓, 하나님께서 만드신 호르몬의 유사체를 만들어서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짓을 역시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하겠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만이 진리이다.

그냥 물! 재래식 유리병에 담아 먹자. 그리스도인이 물맛이 좋고 편한 것을 찾기로 작정했던 적은 없다. 하나님이 주신 물 그대로 암반수를 찾아 마실 수 없다면 인간의 손이 가장 적게 들어간 수돗물이 낫다. 클로린 냄새와 석회 성분이 걱정된다면 직수식 정수기를 이용하는 방법과 나만의 응급 정수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일단 수돗물은 산성도 검사에서 알칼리에 속한다. 적어도 산성수는 아닌 것이다. 수돗물을 유리병에 담고 레몬 한 조각 또는 오이 한 조각을 띄운다. 하나님이 만드신 열매들이 수돗물의 화학 성분을 정확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레몬과 오이가 집에 없을 때라도 한국 사람이라면 쌀은 꼭 있다. 수돗물에 쌀을 조금 넣고 흔들어도 정수가 된다. 내 몸 건강하자고 BPA를 거부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 세상에 넘쳐나는 모든 환자들을 생각하며 내 육체의 편안함은 잠시 내려놓고, 오늘 유리병에 물을 담아 레몬 동동 띄워 마셔 보는 어떨런지...

글 김소라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일



생각지도 않았던 미국행이었습니다. 다분히 선망의 마음만 있었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기에 이곳 현지사정에 어두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민자들의 공식처럼 사람도 만나고 정보도 얻자는 맘으로 찾은 곳이 임마누엘 교회였습니다. 마침 돌된 아기도 봐주신다니 감사한 마음으로 말기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처음 맡길 때 브로셔를 보니 부모들이 한달 간 봉사를 해야 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딱히 지켜지지 않는(?) 강제성 없는 조항이었지만 준법성(?)이 유난히 투철한 남편이 제 등을 떠밀기에 어쩔 수 없이 영유아부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달만 하려 했는데 봉사자가 부족하다며 붙잡는 손길에 차마 거절을 못하고 눌러 앉게 되었습니다. 이후 잠깐씩 쉬기도 했지만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을 영.유아부 한곳에서 말뚝을 박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처음 맡았던 아이들이 영유아부, K-1, 초등부를 거쳐 Youth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년 분들은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인지 몰라 웃지 못할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눈앞에 보이는 아이가 낯 집 아인지는 훨씬 꿰뚫게 되었습니다. 어른 분들의 성함은 몰라도 아무개 엄마, 아무개 아빠로 기억하는게 훨씬 자연스럽게도 합니다.

제 아이 둘을 키우는 동안에도 서툴렀던 포대기였는데 이제는 포대기 업기의 달인이 되어 우는 아이 들쳐업고 재우는 신공의 경지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유난히 많이 울던 아이들은 더욱 기억에 남습니다. 더 많이 보듬어 주고 울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교회 이곳저곳을 종종걸음으로 서성대기도 했습니다. 유독 낮가림이 심했던 아이들이 어느덧 예배에 적응해서 방긋거리는 모습을 보면 감사의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젖먹이 아이들이 커가며 걷고 말하고 울동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업어 키운 아이라고 마구 자랑하고 싶기도 합니다. 산만 그 자체였던 아이들이 2살을 넘기면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 기도하기도 하고 전도사님 말씀에 귀기울이며 의심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질문에 딱딱딱 딱 딱아리같이 대답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런 천사같은 모습 때문에 예수님도 어린아이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셨나 보다 하고 깨닫습니다. 영유아부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크리스찬은 90% 이상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비록 제가 12개월 미만의 영아 담당이라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아이들 기억 속엔 없을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교회 와서 처음 드린 예배 속에 저의 작은 섬김이 있었다는게 제겐 큰 기쁨입니다. 적은 시간이지만 나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의 일부라고 생각하니 제가 영광의 자리를 누리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유아부가 몸집으로 따졌을 때 교회 내에서 가장 작은 성도이니 저는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셈입니다. 우연찮게 시작한 봉사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복 주시려고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이런 고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교회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광야같은 세상을 유리하는 가짜 크리스찬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말씀과 훈련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성도 간의 교제와 권면을 통해 미리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좋은 교회를 만나야 가능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낯설다고 느끼는 분들이나 충족되지 않은 영적 준비된 결단과 전적인 헌신이 아니더라도 자녀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늘 넘치는 열정으로 아이들 예배를 준비하시는 박은수 전도사님, 믿음의 일꾼으로서 섬김의 예를 보여주는 동역자 선생님들,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컨대 젊은 부부들은 아이들 많이 낳으시고 믿고 맡겨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저희 영아부 선생님들은 베이비시터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기를 원하며 부모님들께서 맘껏 예배를 즐기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조력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글 문주리





하하하 성례팀,,,

할렐루야!

성례팀 인사드립니다. 하하하 (웃음)!

언제나 성령님께서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지요. 특별히 성례팀을 구분하여 주시며 사랑과 은혜로 채워 주셔서 성례팀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용기와 믿음으로 성례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믿음이며 축복이지요. 그리고 저희 (성례팀) 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부심 또한 크지요. 하하하 (웃음)!

우리의 주재이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생명과 지식에 대하여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만이 영광이 영원하소서. 산들에 흠여져 있던 낱알들이 모여 한덩이 떡을 만들듯이 하나님의 교회도 땅끝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모이도록 하소서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영원하소서.

성례식은 목사님의 집도 하에 일년에 4번 하고 있으며 성례팀은 먼저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고 참여하며 성령충만함으로 준비합니다. 옆사람과 잡담을 하거나 다른 데 쳐다 보기보다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성례팀은 몇 분이 정해진 것이 아니며 준비는 당회가 작성하면 일주 전에 주보에 알리고 성례팀이 모여서 준비기도와 목사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깨끗이 하며 경건하도록 준비합니다.

당일 준비과정은 일주일 동안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자세가 되면 팀장님 (혹은 목사님)의 기도로 성례준비를 합니다. 성례팀 전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먼저 양보하는 마음으로 손을 움직여야만 실수를 덜하니깐요. 준비 과정에서 조그만 실수가 시간을 지체할 뿐만 아니라 청소를 하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과정이라서 신중함(천천히 그러나 빠른 손놀림)과 마음의 여유도 필요하지요. 그래도 웃으며 서로의 조그만 실수가 있다 해도 서로가 인정해 주면서 '참 잘 했습니다'라며 미소로 살짝 웃어 주는 우리 성례팀원이 그럴 땐 참 예뻐요. 그리고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성찬을 중요시하며 시행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며 인정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35)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과 함께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최고의 유연적 명령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주님을 머리로 여기는 몸의 지체들은 이 명령을 준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데 더욱 힘써야 하며 그리하여서 더욱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 식구님들 이제 우리 교회 성례팀의 중요함을 아셨지요? 그럼 이제부터는 함께 중보 기도하시는 믿음의 동지가 다 되어야 합니다. -하하하 성례팀 드림

글 김명옥 권사





2014년 임마누엘 최다 도서 대출자와의 인터뷰

을 1월 도서실을 찾아 2014년 우리 교회 도서실 최다 도서 대출자 명단을 확인했다. 조금은 생소한 이름이기도 했지만 분명 젊은 분일 거라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도서담당 집사님께서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얼굴을 보면 금방 알 거라고 하셨다. 누구일까 증폭되는 궁금증 끝에 2부 예배 후 산나 찬양대, 맨 앞줄에서 매주 가장 기쁜 얼굴로 행복하게 찬양하시는 인터뷰의 주인공을 만났다.

***김응자 집사님 안녕하세요? 먼저 2014년 임마누엘 도서실 최다 도서대출자로 선정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뽑아 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살다 보니 이런 인터뷰를 하는 영광도 오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떨리기도 하고 그러네요”

***수줍은 듯 솔직한 소감 감사합니다. 그런데 집사님께서 언제부터 책을 좋아하게 되셨고 책을 가까이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학창 시절엔 누구나 시인이 되잖아요.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는 책을 많이 읽거나 가까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제가 길치가 돼서 운전을 잘 못하다 보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그때부터 책을 접하기 시작했어요. 책을 읽다보니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어 책이 없으면 뭔가 허전해서 항상 책을 끼고 있어요. 이사 때마다 책이 짐이 되 거의 다 없애서 집에는 책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 교회 도서실이 있다는 것이 저는 정말 너무 너무 좋아요”



“장미는 장미대로 예쁘고 국화는 또 얼마나 예쁜지 국화를 보면 하나도 버릴 수 없고 안개꽃을 보면 다른 꽃들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어느 꽃이 제일 예쁘다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매주 몇 권 정도의 도서를 대출하는지와 책을 가까이하시면서 달라진 삶의 모습을 나눠 주세요.**

“12년 동안 거의 매주 2권씩, 1년에 100권 정도는 대출해서 읽었으니까 꽤 많이 읽은 것 같네요. 책을 읽다 보니 참 좋더라고요. 우선 잡념도 없어지고 스트레스받을 일도 없고,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니 돈 들어갈 일도 없고, 교회 도서실이라 신앙 서적이 많다 보니 저 자신이 영적으로 맑아짐을 느낄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참 좋아요. 때론 두 권이 부담스러워 한 권만 빌려 가면 시간이 남아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책을 끼고 살다 보니 자투리 시간에도 책을 읽게 되고 두 권을 읽으려면 약간 긴장해야 되니까 제 삶이 흐트러지지 않아서 좋고 감사해요.”

***흠스테드 시절의 교회 도서실 모습이 궁금한 데 그 당시 교회 도서실 풍경과 지금까지 읽으신 책 가운데 꼭 한 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소개해 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흠스테드에 있었던 2002년쯤 임마누엘에 왔어요. 그땐 현재 도서실의 1/3 정도 크기의 작은 방에 테이블 한 개가 놓인 작은 도서실이었어요. 비록 좁은 공간에 책도 많지 않았지만 교회에 도서실이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꽃꽂이 사범을 오래 했어요. 워낙 꽃을 많이 만지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은 무슨 꽃을 제일 좋아하세요?” 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었어요. 장미는 장미대로 예쁘고 국화는 또 얼마나 예쁜지 국화를 보면 하나도 버릴 수 없고 안개꽃을 보면 다른 꽃들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어느 꽃이 제일 예쁘다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책도 그 나름대로 특색과 그 사람의 신앙과 정신 등, 모든 것이

담겨 있어서 마치 의사가 내시경으로 사람 속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책을 한권 추천하라고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주일이라 찬양연습으로 많이 바쁘셨을 텐데 기쁜 마음으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 들려주시고 집사님과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만약 도서실이 없었다면 그동안 긴 세월을 어떻게 보냈을까, 노년에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를 생각하면 더욱 감사하고 지금까지 책을 읽을 시력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지요. 요즘 우리 교회 도서실에는 문학 서적부터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책, 영문으로 된 도서와 훌륭한 목사님들이 쓰신 신앙 서적과 신간 도서까지 다양한 분야의 좋은 책들이 너무 많은데 성도님들이 많이 빌려 읽지 않는 것 같아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김응자 집사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면서 책을 통해 빛을 본 사람은 책 속에 길이 있음을 알게 되고 빛을 본 인생의 길은 분명 다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짙게 들었다. 조금하고 여유가 없어지고 점점 빠른 것을 추구하는 시대에 좀 더 느리게 사는 법을 배우면 어떨까? “책을 자주 만지면 영혼이 빛이 난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일까, 집사님의 모습 속에 한 줄기 빛처럼, 녹슬지 않은 그녀만의 깊고 빛나는 영성이 깃들어 보였다.

글, 취재 편집부 김정신



예배와 영혼구원, 양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임마누엘장로교회
KOREAN EMMANUEL PRESBYTERIAN CHURCH

www.kepc.org / T. 408.263.5100
4435 Fortran Dr. San Jose, CA 95134

발행인	손원배
편찬인	백영진
기획	김정신
진행	김정신/장은영
사진	윤영숙/김범진/김홍배
교정 및 교열	정현주/최정아
편집디자인	김은경/박정은/김유경